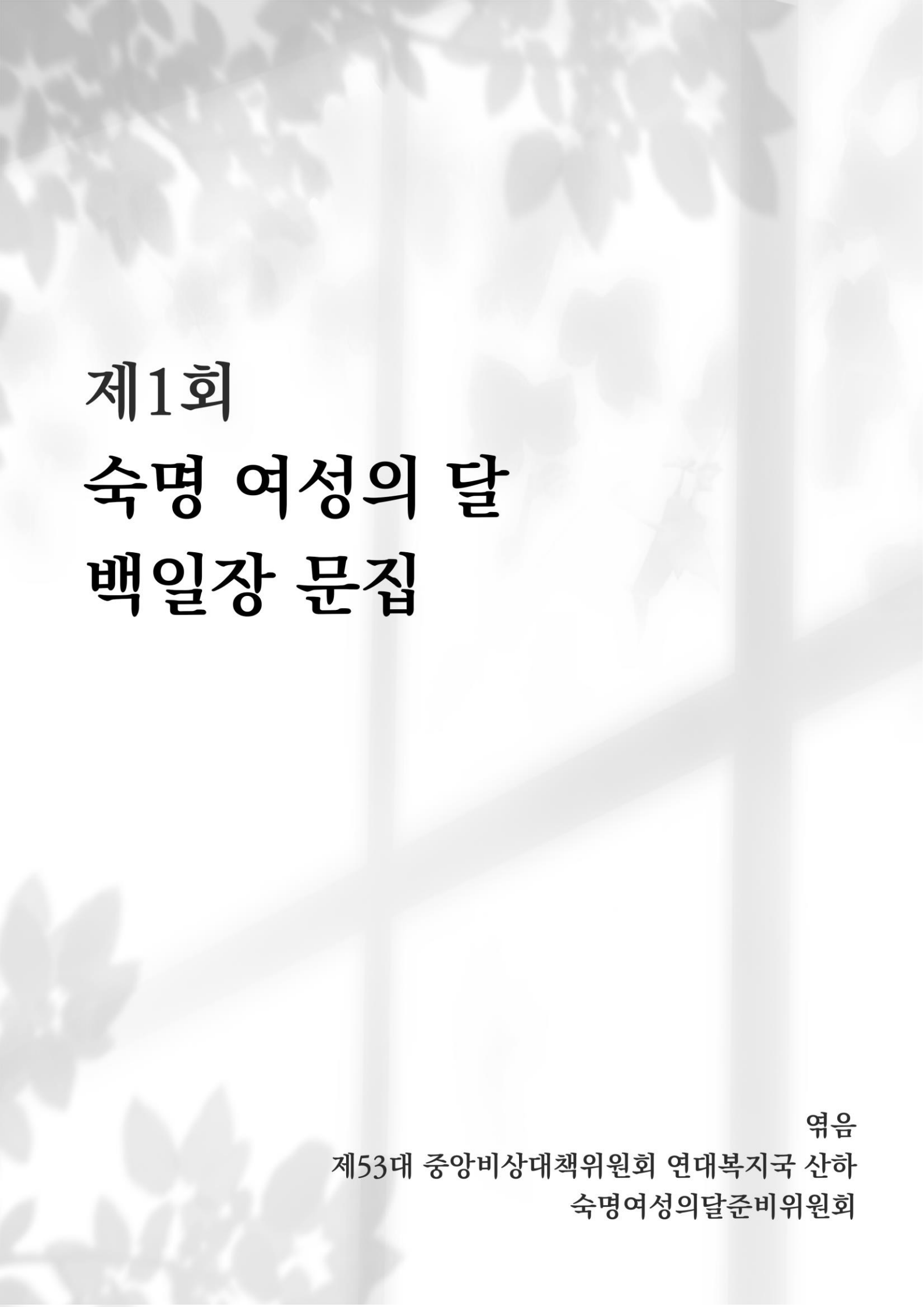




제1회 숙명 여성의 달 백일장 문집

역음
제53대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연대복지국 산하
숙명여성의달준비위원회

산문 부문





장원

나는 지금, 머리를 자르러 갑니다.



최은아

〈장원〉

나는 지금, 머리를 자르러 갑니다.

최은아

에필로그

페미니스트가 된 지는 어엿 4년.

N 번방 사건이 터지며 더더욱 페미니즘을 공부했던 것 같다.

나는 내가 '어느 정도 페미니즘을 이해한' 페미니스트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간과한 것이 있었음을 미처 몰랐다.

바로, '탈코르셋'과 '주체적 꾸밈'.

지금부터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페미=탈코르셋

탈코르셋을 하려면 => 머리를 자를 것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이제 훨훨 털어 버려야 한다.

당신이 고민해야 할 것은

'페미라면 탈코 해야 해?' 혹은 '탈코하려면 머리부터 잘라야 하나?'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조여 오는 코르셋들이 무엇이 있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탈코를 하며, 꾸밈 노동에 대해

비판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탈코를 강요하거나, 페미니즘을 강요하려고 쓰는 글이 아니다.

단지, 내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에 한 번쯤이나마 귀 기울여주길 바랄 뿐.

지금부터 세상을 위해, 올바른 페미니즘을 위해, 주체적인 내가 되기 위해

질문을 던질 것이다.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깨달음은 있을 것이다.

질문 하나,

주체적 꾸밈인가요?

10 시간 전만 해도 나는 명치까지 오는 머리 길이를 한 여성이었다.
주로 화려한 액세서리, 원피스, 벨벳 블라우스, 구두 등을 좋아했다.

항상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괜찮아. 코르셋 아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며 4 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
. .
. . .

코로나로 인해 밖에 나가지 못하는 나는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다.
심심해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거울을 발견했다.

거울을 들고 와 갑자기 내 얼굴 바라보기 시간.
근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꼴 보기 싫었다.

'왜 이렇게 콧구멍이 크지?' '왜 입술선은 없는 거야?'
정말 꼴도 보기 싫었다.
내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과 내 맨 얼굴은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화장을 했을 때는 달랐다.
내가 엄청 예뻐 보이고, '이게 나지~'라며 좋아했다.

화장한 내 모습이 '진짜 내 얼굴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순간들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맨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는 나로 돌아오자.

난 상반되는 내 자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내 본모습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한심했다.

그래서 이게 주체적 꾸밈인지에 대해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즉슨 나를 향한 질문이 시작됐다.

1. 나는 롱스커트를 좋아한다.

1-1 왜 롱스커트를 입게 되었는가?

: 초등학교 4학년 시절, 동급생 남학생들이 내가 스키니진 혹은 청바지를 입고
오면

'무다리'라고 놀렸어요. 이에 상처 받은 영훈(초 4 때 나)은 그 뒤로부터 바지를
싫어하게 됐고,

내 다리를 가릴 수 있는 롱스커트를 선호하기 시작했죠.

a. 스키니진 혹은 청바지를 좋아했었는가?

: 스키니진은 그때 엄청 유행하고, 날씬한 내 친구들 보고 예뻐서 따라서 샀는데
내 다리에 너무 딱 달라붙어서 답답했고,
청바지 같은 경우는 너무 뻑뻑해서 불편했죠.

b. 롱스커트의 장단점?

ㄱ. 장점

내 다리를 '가릴 수' 있고, 다리에 압박이 없어서 좋았어요.

ㄴ. 단점

아빠 다리 하면 속바지가 신경 쓰이고(즉 내 마음대로 편한 자세를 못했고) 계단
올라갈 때 치마를 실수로 밟혀서 넘어진 적도 있다는 점?
바람 불 때 내 다리를 광고하게 된다는 점? 아 여름에 입기 더워요. 그래도
역지로 입었죠, 내 다리 가려야 하니까.

롱스커트만 입다 보니까 여름엔 허벅지 가랑이가 마찰로 인해 살이 까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바지는 입기 싫더라고요. 내 다리가 부각돼 보일까 봐.

c. 다른 바지를 찾아본 적은 없나요?

'와이드 바지는 남자애들이 싫어한다'라는 말을 듣고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잘 보이고 싶었으니 편한 바지들은 제쳐뒀죠.

'흰 티에 청바지'에 환장한다는데 뭐.

그리고 그게 그때 유행이었어서...

* 스킨니진, 청바지, 롱스커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님. 단지 몸매를 부각하는 스킨니진, 청바지 유행했다는 사실과 그게 초등학생대까지 내려왔다는 점. 사회 구조적 문제 등을 언급함.

이걸 깨달은 후부터는
'타인에 의한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주체적 꾸밈'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꾸밈 노동에 익숙해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속상했다.

최근 즐겨 입는 와이드 팬츠, 마치 아무것도 안 입은 느낌인데.

난 대체 왜 몸에 불편한 바지를 입으려고 했으며,
내 다리를 가리기 위해 롱스커트만을 고집했을까?

어쩌면 나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마르고 눈이 크고, 코가 오뎅하고
일명 '쭉쭉빵빵 날씬한 미녀'와 같은
'사회적 여성상'에 나 자신을 구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즉,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타인에 의해 '하게 된' 것은 아닐까.

TV 를 켜면 '날씬하고 예쁘다'라고 말하는 연예인들이 나온다.
그리고 '뚱뚱하고 못생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희화화의 대상이 된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공감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충분히 '보편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나는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이 되기 싫었기에
'날씬하고 예쁜' 사람이 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사고,
높은 구두를 신곤 했다.

내 몸을 삭히면서 까지.

질문 둘.

가스라이팅을 당해본 적 있나요?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내가 왜 눈이 새빨강게 충혈이 될 때까지 렌즈를 빼지 않았을까?
내가 왜 먹고 싶은 걸 포기하면서 까지 다이어트를 했을까?
내가 왜 더 '섹시해 보이기' 위해 몸매가 부각되는 옷을 입었을까?

이게 '가스라이팅'의 결과 아닐까?

학교에선 종종

평소에 화장을 즐겨하던 아이 日

귀찮아서 화장을 하지 않은 날이면 친구들이 꼭 물어봐요.

"오늘은 왜 화장 안 했어?"

"혹시 어디 아파? 오늘따라 아파 보이네"

그래서 전 또다시 파우치를 꺼내죠.

평소에 화장을 안 하던 아이 日

친구들이 화장 좀 하라고 해요.

언제는 친구들이 화장을 직접 해주더라고요.

화장한 모습을 본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화장한 게 훨씬 예쁘다!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다녀~"

"오늘 어디 가나 보네~ 어디가?"

그때부터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스라이팅. 느껴지지 않는가?
일상생활 속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이를 인지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주체적인 나'를 위해 한 발자국 내디딘
것이다.

한때 나는 '화장을 하는 건 내 자유다'라고 생각했지만, 화장 자체도
가스라이팅임을 깨달았으니.

가스라이팅을 떨쳐내고, 우리 모두 주체적인 나로 살아가자.

질문 셋,

탈코르셋,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탈코르셋은 사회에서 '여성스럽다'라고 정의해 온 것들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때 '여성스럽다'라고 정의해 온 것들의 예로는 화장, 렌즈, 긴 생머리, 과도한
다이어트(건강을 위해서가 아닌)등이 있다.

우리는 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한 외적 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우린 할 수 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탈코르셋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뭐 그런 건 없다.

앞서 말했지만, 탈코=숏컷
이러한 인과관계가 아니다.

아까 주체적인 나를 언급했다시피,
탈코르셋을 하는 과정에서의 당신은 주체적이어야 한다.
즉 스스로의 의지가 필요하고,
왜 탈코르셋을 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자기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혹은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의지가 가득하다면

당신은 벌써 코르셋을 하나하나 벗고 있을 것이다.

질문 넷,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주로 페미니스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와 같다.

다시 정정하겠다.

페미니즘은 평등하지 못한 우리의 성차별 문제를,
즉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여성에게 주어지는 억압에 저항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별을 해결하고자 한다.

여권을 상승시킴으로써 남권과 동등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성의 인권을 올린다는 사실에 여성 우월주의라며, 비판하려고부터 하지 마라.

반박에 반박한다

주로 페미니스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대해 반박합니다.

1. 남자들은 군대 가잖아?

그 군대 가는 정책도 남자가 만들었다.

당신들도 불편한 게 있다면 메머니즘을 만들어라.

페미니즘이 열풍인 이유는 그만큼 여성이 일상에서 수많은 차별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2. 남자들도 화장하는데, 똑같잖아?

당신들이 진짜 웃긴 게 뭘 줄 아는가?
'남자들도 화장하는데 ~ 여자들 생색내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렌즈 끼고, 아이라이너 그리고 있는 남자들 보고는

게이냐느니, 더럽다느니, 남자가 화장을 왜 하냐느니, 왜 저러냐느니
비꼬는 거다.

게이 = 화장함 이것도 편견인 것이고
자연스럽게 성소수자를 비하한다. 당신이 뭘데?

그걸 언급하면 그건 과하다느니, 자기가 말하는 건 피부와 눈썹과 같은 '자기
관리'였다느니
어느 쪽이든 생각이 빵은 건 똑같다.

자신이 가스라이팅 하는 줄도 모르는 것에 부끄러워하길.

3. 페미니스트들은 다 못생겼다. 예쁜 애들 부러워서 저러는 거다

못생겼다, 예쁘다는 기준은 무엇이며
그런 기준을 또 떠올리고 있는 당신의 그 생각부터 뺐다.
비판하려고 애쓰지 마라.

4. 여자인데 왜 여성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죠?

'도취적 나르시시즘'

여성의 매력적인 외모를 통해 남성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권력을 탈취하는
것이므로

여성의 관능성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취적 나르시시즘이 표출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서 남성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예쁘니까 좋다,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는가?

당신이 말하는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당신은 수많은 남성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다.

자신은 얻는 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결국 내 본모습을 잃게 될 것이다.

나는 투블력을 했다.

거울을 보고 생각한다.

이게 진정한 자연스러운 내 모습이 아닐까.

지금부터 난,

외면보다는 내면의 나를 더 가꾸어 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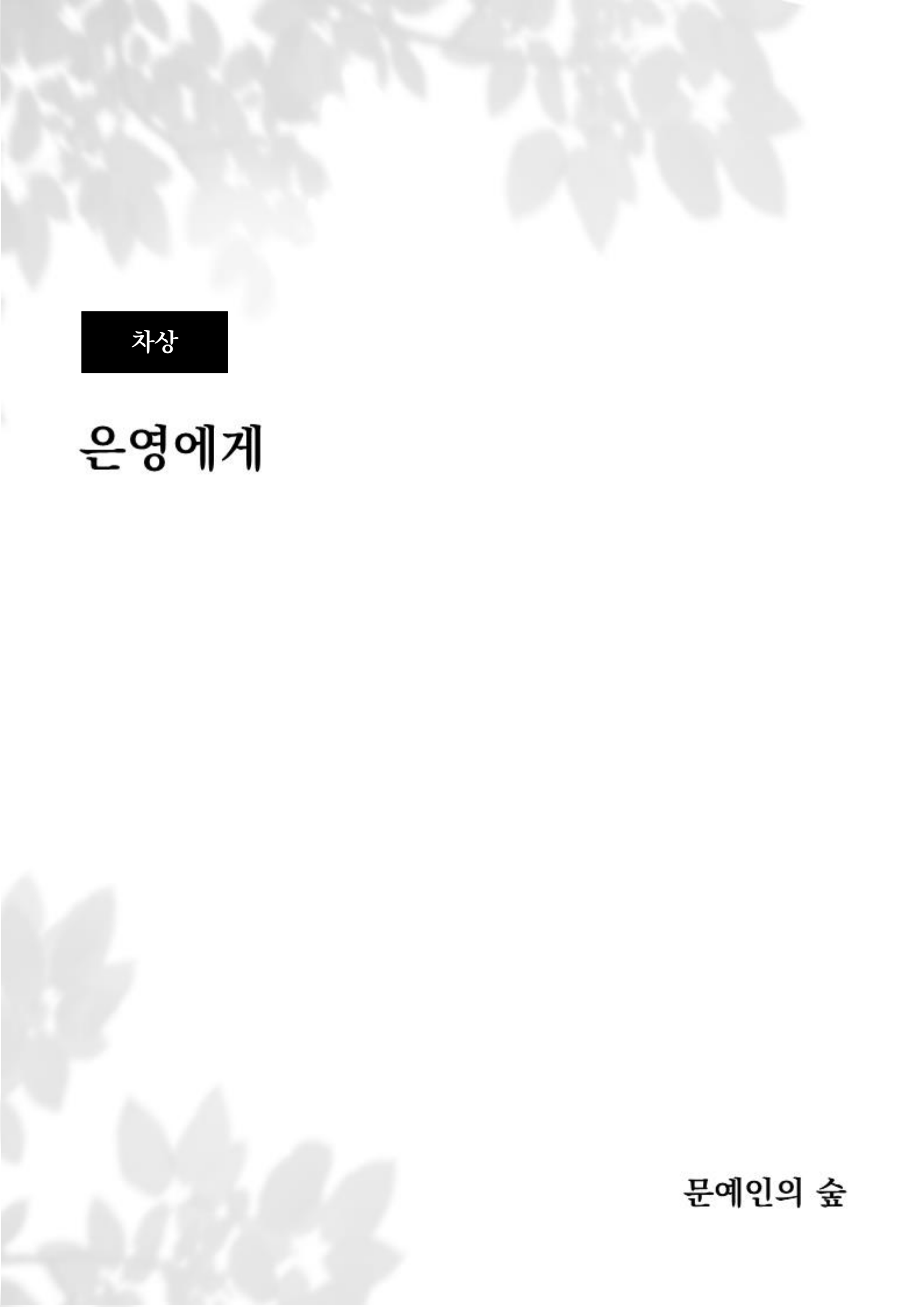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힘들고 외로운 길처럼 느껴질지언정,
용기를 낸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모두 스스로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 천천히 와요.

각자의 방식대로 연대하기,
각자의 속도대로 나아가기.

항상 연대합니다.



차상

은영에게

문예인의 숲

〈차상〉

은영에게

문예인의 숲

“앗, 안 돼!”

아이가 파도에 휩쓸려가는 조개껍질과 돌멩이 따위를 작은 발로 쫓는다. 양증맞은 이목구비에 일순 허망함이 어렸으나, 아이는 곧 아무렇지 않게 모래사장에 걸린 조개 껍질들을 다시 주워 와 하던 일을 계속한다. 고사리 같은 손이 대체 뭘 완성하고자 바삐 움직이고 있는지 짐작도 안 갔지만, 기껏해야 다섯 살쯤 됐을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진중하기에 나는 그만 웃음이 터졌다.

1월임에도 이렇게 포근한 날씨에 바다를 구경할 수 있다는 사실로 사람들은 펍 들뜬 것처럼 보였다. 관광지로도 거의 알려지지 않아 언제나 한적한 이 마을에도 오늘은 유난히 사람이 많았다. 지루할 틈 없이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어린아이의 완성작을 볼 수 없다는 건 조금 아쉬웠으나 더 앉아 있다가는 다리가 그대로 모래 위에 굳어지겠다 싶어 무릎을 툭툭 치며 일어났다.

해변의 모래알들을 끊임없이 정렬하는 느린 파도와, 작은 마을을 품은 등지처럼 늘어선 산줄기.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여유로운 삶을 보낼 것이라 흔히들 말하지만, 사실 이 마을에서 한가로운 사람은 나뿐이다. 오직 나만이 느리게 걷고, 목적도 없이 바다를 구경하고, 여유롭다 못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괴로워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곳의 사람들은 나를 해치지도, 나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도 않는다.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나는 매일같이 상처를 입었다. 이미 보기 흉하게 덧난 상처 위에 손톱을 세워 긁어대는 건 결국 나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나는 왜인지 멈출 수가 없었다.

일자로 길게 뻗은 해변을 따라 북쪽으로 계속 걷다 보면 마주치는 골목 꼬트머리의 작고 낡은 집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다. 칠십 세가 넘으신 할머니 혼자서 지내시던 집인데, 6개월 전쯤 돌아가시고 텅 비어있던 이 집에 내가 도망치듯 들어온 거였다. 멀리

서 볼 땐 집 앞에 선 물체가 웬 화분인가 했다. 그러나 50미터쯤 거리를 두고 보자 그게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더 가까워지자 내가 아는 얼굴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 얼굴은 하얀 담벼락에 기대 땅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자박거리는 내 발소리가 들려오자 내내 주인을 기다린 강아지처럼 고개를 들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얼굴을 획 들 때의 기세는 어디 가고 조금 축스러운 듯 한 표정을 지었다.

“은영이 맞니?”

반쯤은 기대, 반쯤은 조마조마한 얼굴에서 그녀의 솔직함이, 그리고 변함없는 순수함이 엿보였다. 그녀와 가까워서 다시 눈을 마주하자 나는 당혹감에 어쩔 줄을 모르고 부자연스럽게 눈을 피했다. 아마 내 얼굴은 어느새 하늘을 물들인 노을에도 가려지지 않을 만큼 새빨강게 되어버렸을 것이다. 부끄러운 마음에 그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가 자주 입으시던 낡은 체크 남방도, 양말을 신지 않은 발과 허름한 검정 슬리퍼에 잔뜩 앉은 모래 먼지도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뭔가 말을 하려 해도 목이 메어, 간신히 낸 볼품없는 소리는 음절조차 되지 못하고 허공에서 흩어졌다.

“은영아, 나 기억하지? 나 연수야. 아빠가 편찮으셔서 잠시 내려왔는데…, 오랜만이다.”

보통 소꿉친구와의 15년 만의 재회란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설령 반갑지 않은 얼굴이라 하더라도 반가운 척은 했어야 도리에 맞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친구의 상냥함에도 어색하게 고개를 한번 까딱이고는 그녀를 지나쳐 집의 대문을 열고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리 조건 없는 친절을 베푸는 그녀라도 이로써 나에게는 질려 버렸을 것이다. 차라리 마음이 편해졌다. 해변을 걸어오며 오늘 저녁엔 김치찌개를 해 먹어야지, 생각했는데 그럴 마음이 썩 사라졌다. 방문을 여니 작은 방 안을 노을이 가득 메우고 있었다. 나의 방에 유일한 작은 창문으로는 수평선이 마주 보인다. 창문이 작아서 불만이었던 건 처음뿐, 이 창문으로 밖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어느 유람선의 객실에 머물

고 있는 듯 한 기분이 들어 나는 허름한 방구석조차도 낭만 어린 향해의 일부로 느끼게 되곤 했다. 오랜 친구의 여전한 눈망울, 어린아이의 작은 손.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는 인상에 나는 이불을 끌어 와 깊게 얼굴을 묻었다. 오랜만에 느낀 체취가 날 감싸 애써 떨쳐보려 이불 속에서 한참 동안을 그러고 있었다. 눈을 감고 있으니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자꾸만 요동치는 파도처럼 내 머릿속을 헤집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고등학교 1학년이던 나는 철이 없고 순수한 고등학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세상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었고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삶의 아픔만은 빨리 배웠다. 유년 시절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 형편 탓에 부모님께서는 갑작스러운 이혼을 하셨고 그 후 우리 가족은 어머니와 나뿐이었다. 그래도 사랑으로 보듬어주시던 조부모님이 계셨기에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었다. 어느덧 자라서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그 기억도 어린 시절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일 뿐이며 앞으로의 내 삶은 온통 행복으로만 가득 찰 것 같았다. 정말 그럴 줄만 알았다. 그 아이와 얹히기 전까지는.

고등학교 입학식, 새 학년 새 학기 첫날이라 그런지 어젯밤엔 도통 잠이 오질 않았다. 중학교를 끝으로 홈스쿨링은 끝을 내고 엄마와 약속했던 대로 아픈 기억을 간직한 그 동네와는 이제 영원한 작별 인사를 하고 조부모님이 계시는 바닷가가 자리한 작고 예쁜 마을로 이사를 왔다. 이제는 정말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후련하면서도 설렘이었다. 설렌다는 감정이 얼마 만인지 이제 여기에서는 행복만 일들만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무엇보다 나도 드디어 친구가 생긴다는 생각에 심장 박동이 요동치듯 쿵쾅거렸다. 어린아이같이 설레하며 호들갑을 떠는 스스로가 우스워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한참이나 서서 바라보았다.

“은영아 어서 와서 밥 먹어. 국 다 식겠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간소하지만, 정성이 담긴 반찬들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표 김치찌개로 가득 찬 상차림이 오늘따라 더 마음에 들었다. 출근하느라 정신없는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대한 입학식을 위해 아침부터 찌개를 끓여주는 정성을 알기에 얼른 밥 한 공기를 후딱 해치우고는 힘차게 대문 밖을 나섰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침부터 엄마랑 식탁에서 너무 많은 수다를 떨어서인지 하마터면 스쿨버스를 놓칠 뻔했다. 겨우 일분이라는 시간을 남겨두고 간신히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벌써 스쿨버스엔 학생들로 빼곡했다. 한적한 바닷가가 보이는 해안도로를 십오분 남짓 달려 드디어 학교 앞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답답한 버스에서 탈출하려고 다들 미친 듯이 달려 나간다. 얼떨결에 나도 같이 내렸다.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다. 교복 정리를 하려고 가방을 다시 고쳐 매려던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한 여학생의 목소리, 수많은 사람이 모인 정문 앞이지만 왜인지 나를 향해 부르는 목소리인 것 같았다.

“저기요.”

혹시나 하고 살짝 고개를 돌려보니 역시 한 여학생이 나를 향해 서 있었다. 옷차림을 보아하니 나와 같은 신입생인 것 같았다.

“내리시다가 손수건을 흘린 것 같아서요. 전해 드리려고요.”

맙소사. 손수건을? 설마 하고 보아하니 진짜 그 손수건이었다. 엄마가 나를 임신하셨을 때 아빠가 나를 위해 손수 만든 그 손수건. 미쳤지. 함은영 그게 너한테 어떤 손수건인데 두고 내려.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기에 더욱더 당황스러웠다. 그러면서 본인도 등곳길에 정신 없었을 텐데 이런 것까지 챙겨주고 정말 고마울 따름이었다.

‘저기.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꼭 은혜 갚을게요!’

뭐라도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괜히 폰수 같아 보이려나? 부담스러워하려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운동장에 울려 퍼지는 입학식을 알리는 안내방송에 서둘러 감사한 마음을 전한 후 바로 운동장으로 이동했다. 늘 반복되고 똑같던 일상에서

벗어나 아침부터 벌써 이렇게 많은 일이 생기다니 새롭고 정신없지만 싫진 않은 기분으로 강당에 도착했다. 서둘러 반 배정을 확인한 후 내 반을 찾아 줄을 섰다. 늦게 도착해서인지 벌써 친구들끼리는 삼삼오오 짝이 되어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친구 사귀기는 글렀다는 생각에 허무함에 빠진 그때 아까 맡았던 그 향기가 훑 들어왔다.

“어? 너도 1반이야? 잘됐다! 우리 올해 잘 지내보자! 나는 송연수라고 해”

세상 참 좁다더니 아까 나에게 손수건을 전해주던 그 아이였다. 홀로 버려진 섬에 아는 이가 찾아와준 기분이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숨긴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반가워. 나도 잘 부탁해. 나는 함은영이야.”

여름방학이 오기 전까지 우린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다. 주위의 친구들마저 너희 둘은 영혼의 단짝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연수는 나와 공통점이 많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아이였다. 공통점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둘 다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점. 처음에 연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적잖이 놀랬었다. 연수는 조그만 그늘조차도 보이지 않은 구김살 없이 항상 밝고 웃음으로 가득 찬 아이였다. 연수 어머니께서는 연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암이 심각해져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다.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고 조부모님께서 집에 자주 들리신다고 했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난 벌써 눈에 눈물이 고이는데 연수는 이제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 않다며 달관한 표정으로 웃음 지으면서 오히려 날 위로해주던 아이였다. 그리고 늘 나를 품어주던 아버지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던 그런 아이였다. 그런 그녀와는 영원한 친구로 지낼 줄 알았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7월 말, 학교는 여름방학을 했고 집에 박혀서 에어컨만 틀어놓을 계획이었는데 매마침 에어컨이 말썽이었다. 하필 또 주말이라 고칠 방안도 없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와중, 참을 수 없는 더위에 결국 엄마는 잠시 할머니 댁에 갔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온다고 했고 찻는 게 귀찮았던 나는 끝까지 고집

을 피우며 집에 있겠다고 했다. 엄마가 떠나고 한 시간도 안 지나 후회를 하던 중 마침 연수로부터 전화가 왔다. 때마침 아버지께서 저녁에 들어오신다는 말과 함께 집에 영화를 보러 오지 않겠냐는 솔깃한 전화였다.

“좋아! 마침 심심했는데 잘 됐다!”

고민할 새도 없이 나는 연수의 초대를 수락했다. 참을 수 없는 더위 때문에 가겠다고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연수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만으로도 설렘이었다.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친한 친구 사이였지만, 나는 연수의 집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게다가 연수는 집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은근히 화제를 돌렸다. 이는 나에게 항상 작은 서운함으로 자리 잡아있었다. 하지만 연수의 초대 한 번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 어느새 나는 집 주소를 물어보고 있었다.

"어디로 가면 돼?"

나는 검은색 삼선 슬리퍼를 대충 신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연수의 집은 우리 집과는 꽤 거리가 있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오르막길을 계속 오르다 보니 시야가 아득해졌다.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 눈앞에 새하얗고 커다란, 어딘가 신비한 집 앞에 다다랐다.

"뭐야.. 송연수 완전 부자 아니야?"

알 수 없는 배신감에 휩싸인 나는 커다란 집의 대문 앞 부착된 초인종을 세게 눌렀다. 고요한 여름 공기 속 초인종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황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연수가 대문을 활짝 열어 반겨주었다.

"왔어? 어서 들어와! "

그렇게 나는 눈처럼 새하얗고, 신비로운 집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아래로 추락했다.

“뭐야...나 지금 어디로 떨어진 거지? 발을 잘 못 디뎠나?”

싸늘한 바람과 불쾌한 습기가 내 주위를 감쌌다.

"연수야!!!"

몇 번을 불려도 연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돌아오는 건 내 목소리뿐. 진짜 지랄 맞다, 혼잣말을 하며 까마득해하던 순간, 시야가 밝아졌다.

“아아...머리야...”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통증에 머리를 한 손으로 지탱하며 몸을 일으켰다.

“은영아 일어났어? 많이 지쳤었나 봐. 잠들었더라”

온기를 품은 미소와 연수의 음성을 일치시키려 노력했다.

웬 사건인가 싶었는데, 꿈을 꾸고 있었다. 연수와의 첫 만남과 그때의 시절을 떠올리며 잠들었나보다.

나는 나의 이런 무력함에 또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이런 것이 이제는 너무 지겹다.

나를 유쾌했던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유쾌함이 이제는 씁쓸한 취나물 향 같이 느껴진다. 그래. 취나물향. 연수의 삶은 그런 향이 났다. 꿈처럼 연수의 집은 크고 좋지 못했다. 오히려 평범하지도 못했다. 나는 연수를 만나고 내가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수는 자주 울지 않았다. 오히려 자주 웃었다. 지극히 평범한 나를 매번 수많은 웃음으로 감쌌다. 연수의 그 따뜻하고 고요한 향기가 내 몸을 감싼다. 우리는 반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는 알아주는 절친이었다. 교실의 그 누가 우리의

미래를 예상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15년만에야 얼굴을 마주하게 되리라고 말이다. 사실 나는 그동안 연수를 영영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이따금씩 들리는 연수의 근황, ‘그림을 그린다더라. 는 소리를 듣고 찾아갔었다. 그녀의 전시회는 그녀의 그림과,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 비교적 인적이 드문 거렸던 그녀의 삶과 대치되었다. 나는 그것이 다행스러우면서도 질투가 났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미워서 울었다. 그녀의 얼굴을 멀리서 훑쳐봤다. 웃고 있었다. 나는 학창시절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목격하고 싶어 했다. 그 미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모든 걸 숨기고 싶은 발버둥처럼 보였다. 결국 나의 그 소원은 이뤄졌다. 그 소원을 이루자마자 우리는 이별했다.

연수의 얼굴은 미술선생으로 인해 일그러졌다. 그녀의 삶도 얼룩졌다. 얼룩진 삶은 더 얼룩졌다. 나는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했다. 그리고 뒤돌아섰다. 무서웠다. 그녀도 무섭고, 미술선생도 무섭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무서웠다. 도망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속 편한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도망치기로 결정한 순간 그녀와 나는 이제 끝이란 예감이 들었다. 나는 그 미소의 상실이라는 소원을 영원히 이룬 상태이길 바랐던 걸까. 나는 아직도 그 시간에 머물러 있다. 속으로는 그녀가 연락이 오면 받아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도망친 주제에 말이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럴 줄 알고 있었다. 나는 내 기억 속의 너를 철저히 이용했다. 그녀의 꿈을 일 년에 몇 십번씩 꾸었다. 죄책감일까 아니면 쾌감일까. 둘도 없는 단짝을 죽여 버린 나를 경멸한다. 그녀의 잊지 못할 그 경험은 등단의 바탕이 되었다. 그녀는 센세이셔널한 상징이 되었다. 첫 번째 전시회에 손수건 그림이 있었다. 아무런 설명이 없는 그림이었다. 나는 그걸 보자마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엔 아무리 내가 그녀에게 모욕을 주어도 하지 않았던 생각이었다. 너무 죽고 싶어서 그림에 등을 돌리려 할 때, 손수건에 적힌 작고 양증맞은 글을 본다.

To Eunyoung.

그런 그녀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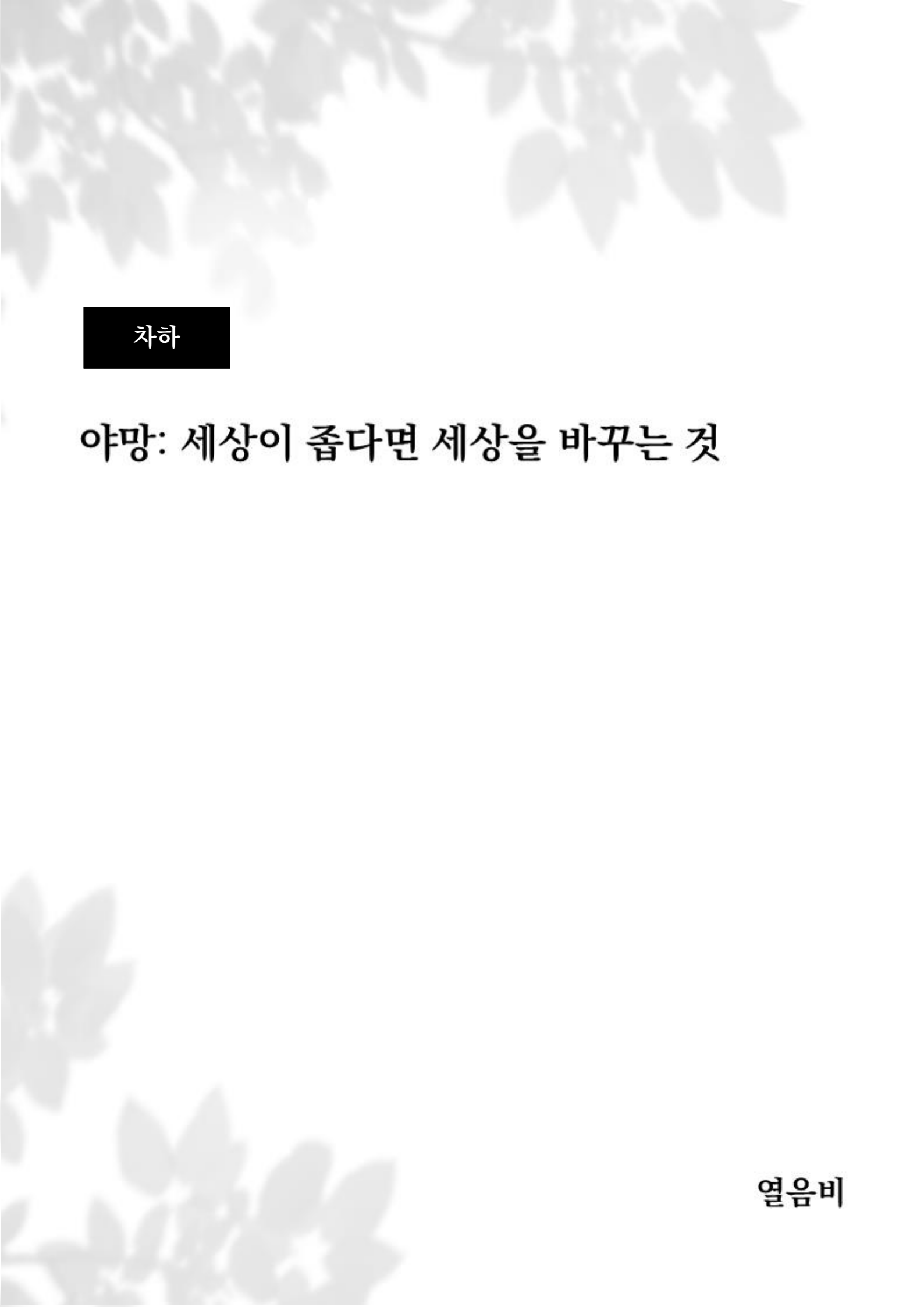
그녀의 가녀린 팔목을 본다.

그녀의 향이 난다.

그녀의 표정을 보고 싶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주제 : 연대



차하

야망: 세상이 좁다면 세상을 바꾸는 것

열음비

〈차하〉

야망: 세상이 좁다면 세상을 바꾸는 것

열음비

야망 따위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나라는 사람에게는 말이다. ‘맞아’ 보다는 ‘맞을 걸’을, ‘싫어요’ 보다는 ‘괜찮아요’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요구 받는 사회에서 크게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이 생기기 힘들었다. 아니, 어쩌면 희망이 없었다. 남(男)들만큼 살기가 참 어려운 이곳에서 야망은 내게 너무 버거운 존재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어릴 적에는 야망과 가까운 사이였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했다. 반장은 물론, 회장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조별 발표에서도 꼭 조장을 맡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으니 말이다. 인정 욕구가 큰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냥 나서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이끄는 과정 하나하나가 내게는 벽참 그 자체였다. 회장이 되기 위해 전교생 앞에 나가 연설을 했을 때는 “지금은 백명 남짓이지만, 꼭 천명 아니 만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작 13살인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놀랍다.

그런 야망은 점차 커져갔다. 무엇이 되었든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 시절 내가 아는 가장 유명한 사람은 대통령이였다. 그러곤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나의 다짐을 비웃듯 줄곧 좌절을 주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남녀공학인 중학교에서는 학생회장 투표는 인기투표였고, 학생회장은 소위 잘생기거나 성격이 좋은 남자가 당선되었다. 그 때도 참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학교를 대표하고 학생을 위한 일을 하는 회장을 얼굴을 보고 뽑는 다니 참으로 웃긴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 때 나에게는 이는 웃긴 일도, 화나는 일도 아닌 슬픈 일이었다. 나의 원대한 꿈으로 향하는 길에서 낙오된 그런 기분이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야망이란, 담고 있으면 더 슬픈 것이 되어버렸다. 차

별적인 발언을 하는 선생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그랬고, 말도 안되는 교칙을 바꾸어 나가면서 당돌한 아이라고 칭하는 어른들의 말들이 그랬다. 그리고 깨달은 건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는 야망은 내가 가진 생각을 숨겨야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야망 따위 버리기로 했다. 나를 숨기고 억압받는 것이 더 괴롭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야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정말로 내게 어울리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적어도 3년 간 내가 숙명여대에 있으면서 나는 크게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희망이 누구보다 가득한 사람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어쩌면 나라는 사람을 담기엔 이 사회가 너무 좁고 뒤쳐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나의 큰 희망을 버릴 수는 없다. 단지, 이전의 야망과 바뀐 것이 있다면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런 내가 빛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이뤄가야 할 큰 꿈이다.

주제 : 야망

나는 숙명여자대학생이다

다비켜일등은내꺼야

우선 나는 20 학번 숙명여자대학교생이다. 20 학번이어서 학교에 가본 적은 별로 없다. 커뮤니티를 통해 학교를 접한 시간이 직접 캠퍼스를 거닌 시간보다 길지만, 대학생이 된 나는 고등학생 때의 나와는 아주 다르다. 이 변화는 나의 삶의 양상을 크게 바꾸었다. 야망을 주제로 잡고 쓰긴 했는데 나의 야망이 무엇인지 말하기는 조금 부끄러우므로 말하지 않겠다. 다만 나의 야망을 위해 내가 발전한 점 3 가지에 대해 다루겠다.

우선 첫번째, 나는 30 살의 나를 꿈꾸게 되었다. 우리 아빠는 자칭 말하는 ‘한남’이다. 25 살이 된 언니 생일날에 ‘이제 꺾일 나이가 다 됐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으며 ‘여자는~’이라는 말을 달고 다닌다. (뵈보다 내가 20 살이 된 날에는 ‘이제 밤에 배고프면 라면 끓이기 시키면 되겠다’고 말하기까지 해서 정말 열 받았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열 받는다는 거, 열 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 정말로 대학교 와서 처음 알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젊은 여자’에 대한 환상을 주입 받았으며 20 살이 되면 마치 새로운 사람으로 변이하듯 힐을 신고 치장을 하고 산다는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대학교에 가도 대학원은 가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중학생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적어도 30 살엔 육아를 하며 회사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몇 년 동안 바짝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서 비롯한 다짐이었다. 내가 어릴 때만 해도 30 살 전에 결혼을 못하는 여성은 ‘노처녀’라고 불렸었다. 나의 애비라는 높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본인 회사의 노처녀가 히스테릭해서 싫다고 노래를 불렀었고, 나는 그걸 들으면서 결혼을 못하면 히스테릭 해지는구나 생각했었다. 나는 히스테릭한 여성으로 보일 까봐, ‘노처녀’라는 소리가 들을 까봐 30 살엔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겠다고 생각했다. 미디어는 30 대의 미혼여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30 살의 여성은 아기를 가지고 육아휴직을 하며 사회에서 자취를 감추는 존재였고,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 돌보고 청소를 하는 존재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집안일하기 싫고 아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잘 키울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비혼을 꿈꾸게 되면서 나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시간이 많아졌다. 숙명여자대학교에 와서 나는 육아, 집안일, 남 뒷바라지로 허비하지 않는 30 대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이제부터 남자들은 나의 성공을 위한 발판, 희생양이 될 것이다. 나 같은 인재가 사회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파이를 빼앗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나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남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고 내 스스로에 대한 검열을 차차 줄일 수 있었다. 중고등학교 시절 나 자신을 생각하면 자존심은 세지만 자존감은 낮았던 것 같다. 친구들 사이에서 뒤쳐지지 않게 화장을 하고 경쟁하듯 교복치마를 짧게 줄이고 연예인 얘기에 끼기 위해 관심도 없는 연예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남자애들과 잘 지내기 위해 성희롱에 가까운 장난에도 재미있는 척 웃고 비위를 맞춰 주기 위해 빌빌 기어댔다. 그렇게 남들을 맞춰주며 살아오면서 내가 얻은 것은 시간의 낭비와 아주 못나고 인성에 하자 있는 남자와 교제한 흑역사밖에 없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내가 원해서 사귀는 적도 없다. '이성인 친구도 많은데 나랑 안 사귀면 나를 가지고 논 어장녀, 걸레다'라는 식의 개소리에 당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귀는 것뿐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들어줄 가치도 없는 말이었는데, 중고등학생 시절, 나는 어장녀 타이틀이 붙을까봐 남의 시선에 위축되어서 남들이 조종하는 대로 끌려 다녔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나를 후려치는 말을 들으면서 열등감에 늘 시달렸다. OO 보다 못생긴 것 같아서, XX 보다 살찐서, AA 보다 인기가 없어서 등 별에 별 이유로 나를 타인에 비교하고 스스로를 깎아 내렸다. 보이지 않는 열등감은 나를 아주 졸렬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찌질한 나 자신의 속내에 실망하여 나 자신에게 정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헤맸다. 숙명여자대학교에 와서 페미니즘을 알게 되면서 나는 사회적으로 억압받으면서 살아왔다는 점, 욕망을 거세당하고 살았으며 내 스스로를 혐오하도록

만드는 여성혐오의 프레임 속에 박제당한 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보다 못한 남자애들은 늘 기고만장하게 살았으며 저보다 잘난 여자애들을 아무 생각없이 욕하고 본인의 요구를 당당하게 말하고 살았었다. 옛날에는 그게 자기에 넘치고 꽤나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여자들의 순종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단 걸 깨달은 후, 조금 허무해졌다. 나를 휘둘렀던 바보들을 이제는 내가 휘둘러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똑똑하고 능력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나는 좀더 냉정하고 덜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다. 일단, 인간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내게 해로운 벌레 같은 사람은 칼같이 끊어낼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다신 불일 없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들을 우선시하고 신경 쓰며 정신건강을 망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여성이 꿈을 꿈에 있어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것은 도덕 코르셋이고나의 도덕 코르셋을 깨부수고 나올 때 내가 비로소 남성과 동등한 경쟁자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사근사근한 여성, 배려심이 넘치는 여성, 착하고 겸손한 여성의 탈을 뒤집어쓰기 위해 나의 욕망을 숨기고, 잘못하지 않아도 사과하고 별거 아닌 것에도 너무나 감사한 척하고, 나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며 살았다. 이러한 나의 행동은 결국 만만한 애, 능력 없는 애, 막 대해도 되는 애라는 이미지를 남기고 끝났다. 한번 낙인처럼 찍히고 나니 무엇을 해도 내게 씌워진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언가를 성취하여도 그 성취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었다. 지금은 쓸데없이 웃음과 감사인사를 남발하지 않고, 칭찬을 받으면 웃으면서 받아들인다.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양보하지 않고 누군가와 맞서 싸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싸가지가 없어 보일 까봐 별별 떨던 행보들이 사실은 오히려 나의 가치를 내보이고 상대를 기선제압을 할 좋은 수단이었던 것이다. 숙명여자대학교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양보하고 움츠리느라 나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박탈당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숙명여자대학생이다. 나는 나 자신, 나의 가치를 누구보다 존중하고 있으며 나의 파이를 위해 전투할 준비가 되어있다. 여자대학교에 온 건 내 생에 있어 예상치 못한 큰 깨달음의 장이었다. 나를 희생하지 않는 법, 나의 성공을 위해 기득권자를 끌어내리는 방법은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내게 알려주지 않았었다.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좀 더 큰 꿈을 꿔으면 좋겠다. 쓰다 보니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진 듯하다. 글이 많이 긴데 못해도 3 등, 아니 2 등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 (상을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상을 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주제: 야망

나는 야망이 있는 사람인가

예사

나는 꽤 야망 가득한 사람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부모님을 이겨서라도 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다. 장손이자 남성인 동생을 두었지만, 가끔 친가에서 들려오는 남아선호사상이 깃든 발언들에 기분 나빠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자랄 수 있었다. 놀이터에서 남자아이들과 뛰어놀았고 여자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야망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랐다. 그저 당연하다 여겼다.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기가 세다는 말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랐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알지 못했다. 나의 작은 사회 속에서는 나의 야망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학교 1 학년이 되어 숙명여대에 입학하면서 그렇지 못한 상황과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실, 나도 모르게 나의 야망을 옥죄는 수많은 순간을 겪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부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가진 야망이 꺾이는 일들을 겪었다. 그 이유는 다양했다. 내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해서. 내가 나이가 어려서. 내 편을 만드는 것에 능숙하지 못해서. 그 안에 “여성이라서”의 이유가 들어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다.

지금 나는 취준을 시작하는 시점에 서 있다. 엔지니어 취업을 준비하는 만큼, 많은 남초 직장들과 높은 남성 취업률을 보면 참 화가 나면서도 나의 야망이 점점 죽어감을 느낀다. ‘여대’임에도 남성 교수님으로 가득한 것부터, ‘여성’ 엔지니어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코 야망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느낀다. 어느새 여성이라서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어필하는 나 자신을, 말을 뱉어 놓고 질책하게 될 때도 많다.

바비인형을 아는가? 36-18-32 인치라는 몸매와 예쁘게 옷을 입히고 화장시키는 놀이를 위한 장난감으로, 기괴한 미의 기준을 만들어버린 논란의 집약체다. 그런데 이러한 바비인형 조차도 점점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했다. 백인 중심의 미를 형상화하다가 많은 논란을 거쳐 흑인 인형이 나왔고, 다양한 국적을 가진 바비들이 나왔으며, 다양한 직업을 가진 바비가 나오게 되었다. 1992 년 대통령에 출마하는 바비를 만들어내면서, 여성인 바비에 빗대어 소녀들에게 어떤 것이든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세계의 리더도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바비를 홍보하는 TV 광고에는 “We Girls Can Do Anything Like Barbie.”라는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다.

작은 장난감 바비인형도 조금씩 변해왔듯, 우리도 꽤 많이 변해왔다. 사실 ‘숙명’여대에 공과대학이 생겨, 내가 공대에 올 수 있었다는 것부터 큰 변화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누군가는 이 변화를 위해 이에 대한 자신의 야망을 드러냈을 것이다. 그렇기에 바뀌었을 것이고, 나 역시 이 변화를 이어갈 또 다른 야망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야망을 품을 수 있다. 너도 야망을 품을 수 있다. 아니, 너와 나는 야망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걸 표현해도 괜찮다고 나에게, 또 모든 숙명인에게 말해주고 싶다. 숙명인을 넘어 전 세계의 여성이 자신의 야망을 알게 되고 표현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주제 : 야망

내가 사랑했던 모든 여자들에게

사가

안녕? 다음 말을 어떻게 이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며 나는 수십 번 백스페이스를 눌렀어. 어색한 말투로 안부를 물어야 할지, 아니면 너도 아는 나의 소개를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면서 말이야. 편지 쓰는 것이 익숙하다고 생각해왔던 나라 이 편지 또한 쉽게 써 내려 갈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이번만큼은 조금 다른 것 같아. 피리를 부는 여자들이 찾아왔었거든. 그들의 연주를 듣고 새롭게 가지게 된 하나의 눈이 많은 것을 바꿔 놓았어. 그 눈으로 미래를 그리고 현재를 읽다 보니, 자연스레 시선의 방향이 어디로 향했는지 너도 알 수 있겠지. 비밀스러운 목적을 지닌 채로 과거의 기억을 파고드는 작업은 기묘할 정도로 마음이 울렁거리는 일이었고, 그 안에서 나는 마치 고고학자가 된 기분이 들었어. 거기서 내가 무엇을 발굴해냈는지 알아? 그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 모르고, 혹은 모른 척 지나간 것들에 대해 말하고 싶어 네게 편지를 남겨.

너는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이 편지의 수신자를 고르기에 앞서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내 나름대로 정의 내려야 했어. 그 이유는 눈치챌겠지만 내가 사랑한 여자를 찾아야 했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도대체 사랑이 뭔지 정리해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너무 어렵더라. 세상은 이 순간에도 사랑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고, 나는 꽤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를 즐겨 봤는데도 말이지.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 너도 지금 사랑을 하고 있을 거야. ‘내가?’라는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밖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왔지 않니? 미디어로 전달되는 사랑의 대부분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 관계를 사랑이라고들 하잖아. 그들이 키스를 하든 대립을 하든 일을 하든

모두 다 사랑이래. 그냥 눈만 마주쳐도 사랑이라고 우기는 모습이 웃기지 않아? 사실 나는 웃긴 걸 넘어서 조금 소름이 돋기까지 했어. 그러한 맹목이 어디서 왔는지 따라가다 보니 불편한 진실과 재회하고야 말았어. 온통 외부의 사랑에 젖어있던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헤맸던 것은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이었어.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행동이 아니라 주어와 목적어였던 거야. 너무 많이 봤음에도 몰랐던 것이 아닌, 너무 많이 봤기에 알지 못했던 거였어.

사랑의 사전적 정의는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이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도 내내 방황을 하다가, 내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해보기로 했어. 우스갯소리로 나 자신을 유사 이과라고 하고 다녔지만, 길이 막혔을 때 떠오르는 건 결국 그런 방법이었어. 사랑을 알아내고자 귀납적 추론을 했다고 하면 다들 괴상한 표정을 짓겠지? 나는 소파에 가만히 기대앉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고 즐거웠던 마음을 쫓아가서 그 뿌리를 파내었어. 그제야 거기에 새겨진 이름을 여러 마주할 수 있었어. 이름을 보고 사랑을 떠올릴 순 없었어. 나는 슬프게도 사랑을 지우고서야 사랑을 찾아낸 거야.

처음의 너는 그다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네가 너무 좋아졌어. 뺨의 주근깨와 얇은 눈꺼풀, 어딘가 구부정한 자세, 그리고 현란한 색깔의 후드 집업과 교복 바지까지 좋았어. 네가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내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 하나라도 더 할 얘기가 생겼으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너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던 밴드 티켓을 내밀었던 것을 잊지 못해. 자랑하는 척 네 얼굴을 조심스레 살폈었지. 어린아이였을 때나 했을 법한 유치한 장난을 너와 하던 친구를 이해할 수 없다가 이내 그가 부러워졌었어. 그리고 어느 날, 멍하니 그냥 숨을 내뿔다가 불현듯이, 훗날 침대의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반드시 남성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이렇게도 명확한데 나는 왜 헛갈렸을까?

그러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버거워 곧 그만뒀고, 이후엔 남자를 좋아했었지. 너는 나만큼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몇 년이 흐른 후에도 나는 종종 그 마음을 의심했어. 좋아했던 게 맞나? 맞다 하더라도 ‘성적인’ 의미로 좋아한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데 그럼 사랑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기엔 알지

않았나? 이제서야 나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었어. 그건 사랑이 맞았다고. 의아하다면 생각해봐, J. 이 마음은 다른 주변인들을 향한 ‘보통의’ 마음보다 강렬했고, 동시에 ‘일반의’ 사랑과 다른 건 너도, 나도 여성인 것뿐이잖아?

확신은 아니지만 나름의 생각을 하고 나서 나는 그 이후로 내가 여성을 사랑한 적은 없다고 믿었어. 아주 최근까지는. 아까 말한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래서 나는 늘 내가 여성을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의구심이 들었어. 그래서 계속 과거의 그 마음을 살폈던 것 같아. 그 마음이 유일무이한 게 아닐지, 심지어는 존재했던 것도 아니었지 않을까 하고. 하지만 이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고 찬찬히 마음을 살폈을 때, 자연현상처럼 네가 떠올랐어. 정확히는 내가 네게 했던 행동이 먼저 떠올랐고, 네가 남성이었다면 또 쉽게 공식처럼 사랑이라고 확정 지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지. 그런 식으로 나는 내 사랑을 또 잃을 뻔했어.

너의 첫인상은 희고, 어딘지 이상한 애였어. 이상하다기보단 알 수 없음에 가까울까. 너는 그저 같이 다니게 된 무리에 속하는 하나였었지. 네가 갑자기 나랑 놀자고 하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우리가 그다지 친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말했을 때 티는 안 났지만 정말 당황했어. 거절하면 더 어색해질까 봐 거절도 못 하고, 버스를 탄 채 30 분이 넘는 거리를 달려 도착한 곳에서 너와 떡볶이를 먹었지.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인가? 싶을 정도로 깊은 얘기를 너는 내게 털어놓았는데. 아마 첫 중간고사 이후였던 것 같아.

그 이후로 너는 같이 다니는 아이에서 친한 아이가 되었어. 너는 내게 무언가를 숨기기도 하고, 나는 남자 때문에 너를 미워해 보기도 하고, 네가 내 고백을 대신 전해주기도 하며 한 해가 끝났지. 그다음 해에 너와 나는 제 2 외국어가 달라 반이 갈렸는데, 이상하게도 그러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내가 폭풍의 중심에 있을 때 넌 하나밖에 없는 온전한 내 편이었어.

너는 상상도 못 하겠지만, 내가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순간은 두 장의 종이에 얹혀있어. 우리는 과학탐구로 반이 나뉘었던 그때 둘 다 물리화학 반이었고, 수능 때 칠 과목으로 물리를 선택했지. 내 담임이었고, 1년 후엔 우리의 담임이 되었던

물리 선생님은 기출문제를 엮어서 책으로 나눠줬는데 답안은 안에 없어서 하나하나 찾아야 했잖아. 그러던 어느 날 네가 내게 답을 물어봤고 나는 모른다고 말했지. 맨날 EBS 에 들어가서 답 확인하기도 귀찮았던 차에 그 물음이 있었고 나는 답안만 모아 인쇄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리고 말이야, 한 부를 더 뽑아 이상하게도 너한테만 주고 싶었어. 내 반에 친한 아이들이 있었고 개네도 그게 필요했는데 너만 생각났어.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그 4 년 치의 답들을 거의 완성하기 직전에, 네가 먼저 찾아와 내게 네가 만든 종이를 준 거야.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 그 안에는 나한테만 이걸 준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었어. 스테이플러 심으로 묶여있는 그 흰 종이 두 장을 받으면서 나는 고작 고맙다는 단어 한 마디만을 내뱉을 수 있었어. 고작 이게 사랑이며 사랑의 증거냐고? 하지만 K, 너도 네 반에 친한 친구들이 많았잖아. 너도 나와 마찬가지로였잖아. 설사 너는 아니었다고 해도, 너를 몹시 소중히 아낀 이 마음이 나는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

그다음 해에 같은 반이 된 너는 나와 같이 밥을 먹지도 않았고, 같이 다닌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너는 가장 확실한 내 사람이었어. 내 친구는 네 친구가 되었고, 네 친구는 내 친구가 되어서도 너는 달랐어. 네 친구가 된 내 친구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내가 울었을 때 너는 나를 중앙 쪽대기 계단으로 나를 데려갔지. 나는 그토록 사람을 믿어본 적 없는 것처럼 울었어. 나는 눈물이 많았고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싫어했지만 네 앞에서 우는 건 부끄럽지 않았어.

반장이었던 네가 여자아이들을 향한 남자아이들의 불만을 알아차렸을 때,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을 때, 너는 나에게만 조용히 조심하라는 언질을 주었지. 나는 그 불만에 상대적으로 덜 일조하기는 했지만, 너의 말 덕에 나는 혼나지도 욕먹지도 않았어. 내가 재수했을 때는 너는 시험 보는 사람보다 더 꼼꼼히 시험을 챙겼잖아. 끊임없는 너의 상기도 불구하고 멍청하게 수시 논술 지원 마지막 날에 그 사실을 알아차린 나의 급박한 SOS 에, 2 학기 첫 수업을 듣고 있던 너는 다 내팽개치고 나를 도왔고 결국 그 강의를 망쳤잖아. 친구 때문에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오직 떠오르는 건 내게 네 이름이었어.

내가 사랑했던 여자들에게, 로 시작하는 이 편지는 결국 너에게 닿지 못하겠지.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야 허겁지겁 배워가는 나라서, 고르고 고르다 끝내 고여있고야 마는 마음들도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를 거야. 증발하고 남은 흔적만으로도 네가 뒷걸음질 칠까 무서워 이 편지는 0 과 1 로 미지근하게 남길 테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아. 더 이상 너는 내게 현재형이 아닌 사랑이고, 그게 나를 슬프게 하지만 다행히도 너무 아프지는 않아.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돌아올 테니까. 그건 너의 사랑일 수도 있고, 너를 닮은 사랑일 수도 있으며, 너와 다른 사랑일 수도 있겠지. 언젠가 우리가 같은 길을 걷고 있길 진심으로 바라. 그때가 되면 나는 네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니까.

진심을 담아, 코로나 시대로부터

주제 : 연대

내 연대의 방식

익명

나는 머리로 한참을 생각한 후에 행동으로 옮기는 성격이다. 그 행동마저 결단력이 있지는 않다. 같이 장 보러 마트에 온 엄마의 등쌀에 못 이겨 마지못해 전화를 걸었으니까. 그 날 마트를 안 갔더라면 운동에 대한 내 결심은 3 달이 넘도록 머리속에서 숙성의 단계를 거쳤을 거다.

점 찍어둔 복싱장은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있던 곳이라 그런지 아주 낡고 노후한 건물 같았다. 강렬했던 원색 간판은 이미 잿빛이 돼버린지 오래인 것 같고 “복싱/킥복싱/다이어트” 라고 쓰인 글씨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자 허스키한 목소리가 짹짹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복싱을 배우고 싶은데, 몇 가지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복싱은 처음이고 손목도 많이 안 좋은데, 배워도 괜찮나요?”

“그럼요, 차근차근 배우면서 익히면 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다녀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 잘 가르쳐줄 것 같아서. 둘, 지금 전화 받은 사람이 여자여서. 카운터 담당이래도 상관없었다. 그냥 마음 어디선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올라왔다.

그렇게 간 첫 날의 기억은, 흠. 딱히 좋진 않았다. 조용하고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 운동을 선 호하는 나로서는 여기저기서 쉼도우 복싱을 하며 땀냄새를 풍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배운다는 것 이 상당히 불편했다. 대부분이 나보다 어리지만 기세 좋은 고등학생들 같았고, 나는 기죽은 상태 에서 소위 말하는, 냥냥 펀치(나름 귀엽게 표현했지만 사실 허접했다)를 날렸다.

이틀째, 삼일째가 되어도 재미는 안 붙고 가기 싫은 마음만 더 커졌다. 이런 운동은 타고나는 사 람들이 있다. 몸 자체가 탄탄하고 날렵한 사람들. 나는 정반대다. 어렸을 때부터 쪽 운동과는 거 리가 멀었고, 이따금 스피닝이나 홈 트레이닝을 한 게 다다. 몸이 아주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이란 말이다.

복싱장 거울에 비춰 보이는 나라는 존재가 참 별로였고, 왜 굳이 내가 돈을 들여 이 운동을 해야 하는지 목적에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거기서 나는 최약체, 최약자였다. 운동을 하기전부터 불안하고 가기 싫어 미칠 것 같았고, 어찌저찌 갔다온 후에는 다 죽어가는 몰골로 가족에게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가기 싫은지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그럴때마다 엄마와 아빠는 내 게 “그러면 안 가면 되잖아,” 내지는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다녀.” 라는 아주 좋은 조언을 해주 었다. 근데, 난 정말 가기 싫은데 어쨌든 그만 다니거나 안 갈 생각은 안 들었다. 그것은 내 선택 지에 없었던 것 같다.

내가 이 복싱장의 일인자가 되겠다는 거창한 포부는 당연히 아니었다. 좀 복합적인 것 같았다. 어 찌다보니 취향이 변했다. 힘을 신고 부드러운 선을 강조하는 춤을 추는 아이돌보다 거칠고 힘 있 는 여자 아티스트에 눈길이 갔고, 남초 직장에서 어떻게든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 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으니까. 취향이 변하는 시간동안 나를 분노하게 만들거나 무 력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건들을 접하거나 내가 순간순간 느꼈던 부당함이, 억울함이 있었고 나는 좀 ‘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냥 여기서는 “어쩌다보니” 라고 뭉뚱그려서 말하고 싶다.

내가 뭘 한 건 아니다. 손가락질받거나 평가당할까 두려워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를 규정하지도 않았고, 여성주의를 혐오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 한번 높여본 적 없다. 그냥 여성의 이 야기를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에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여남공용 쇼핑몰에서 괜히 한번 옷사고, 그게 다다. 스스로도 좀 비겁하지만 이 이상 날 더 드러내는 상황이 많이 두려워서 앞으로도 이 렇게 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내가 맞지도 않는 복싱을 붙잡고 있는 까닭은,

내가 복싱장에서 여자 사범님을 보았을 때 느꼈던 안도감과 용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또 주고 싶 기 때문이다. 사범님이 지나가듯이 “여자애들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말해서 인 것 같기 도 하고. 누군가 조금 더 강해지고 싶은 마음에 복싱장에 들어왔을 때, 주먹 하나 제대로 못 치고 허우적대는 나 같은 여자사람도 여기에 있다고 북돋아주고, 처음의 나처럼 남성들의 공간에서 주눅 들고 위축되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주고 싶은 것 같다.

복싱장에서 여성 분을 보게 되도, 애초에 성격이 무뚝뚝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는 일은 없을거다, 절대. 그렇지만 그 날의 나는 주먹에 좀 더 힘이 잘 들어가고, 괜히 숨 한번 덜 헐떡일 거다. 그 리고 이게 내 연대의 방식이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위도 없는 불안정한 대학생인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것.

내가 상대적으로 외로움에 무디고 사람에 관심이 없어서 고독을 잘 견딘다. 그래서 복싱장에서 잘 버틸 것 같다. 친구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복싱을 배우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다들 요가나 필 라테스, 걸스힙합에 흥미가 있는 것 같다. 복싱이 언젠가는 그 운동들과 비슷한 비율로 친구들의 입에서 거론되는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내가 조용히 여기서 버티고 있겠다.

이거 진짜 할 만하다.

주제 : 연대

무제

익명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강경화 장관님의 이 사진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계속 미적거리며 미웠던 머리를 확 잘라치우기로 했다. 투블럭처럼 자를 용기는 없었지만 숏컷으로 먼저 자르기로 했다. 그렇게 짧아지다 보면 나는 어느새 남동생이 하는 투블럭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며.

탈코르셋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 보자면 이 이야기부터 하고 싶다.

몇 년 전 겨울, 카이스트에 갔을 때였다. 카이스트에서 열린 한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기숙사에서 지내며 한 달 내내 코딩만 하는 캠프였다. 그때쯤의 나는 화장을 자기관리라고 생각하며, 남들보다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화장하는 것이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착각에 빠졌을 때였다. 종일 코딩을 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했고 긴 머리를 다듬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그러던 와중에 캠프를 만드신 대표님과 면담이 있었다. 그때도 나는 어김없이 긴 머리를 다듬고, 화장하고 면담을 하러 갔다. 대표님께서는 나에게 '아침에 준비하고 나오는데 남자애들보다 더 시간이 걸릴 텐데 힘들지 않냐' 라고 물으셨다.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건 화장 같은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었을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기분 나쁜 물음은 전혀 아니었고, 나는 아침에 열심히 '자기관리하고 오는 성실한 나'에 취해서 뿌듯하게 전혀 안 힘들다고 대답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냥 그 물음이 인사치레로 들렸다. 낯선 환경에서 힘든 건 없느냐와 비슷한. 아마 정말 그런 의도셨는지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그건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내 깨달음인데, 몇 달 후에 탈코르셋을 접하고 나는 그때의 내 대답에 대해서 혀를 깨물고 싶어졌다.

그때 그 캠프에서는 다들 개발에 열중하느라 새벽에 집에 들어갔고 다음 날 아침 자다가 일어나 그대로 오는 학생들이 많았다. 세수할 시간도 없이 머리에 까치집을 지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들 미친 듯이 개발에 열중했다. 그때의 나는.... 그렇게 미치지 않았던 것 같다. 누구보다 부족하니 누구보다 더 미쳤어야만 했는데 말이다. 그때의 나는 열심히 하지 않았으며 코딩 한 시간 더 할 시간에 화장을 했던 것 같다. 전혀 문제의식 없이. 어느누구도 나에게 화장을 강요하지 않았고 여남 구분

없이 다들 머리 감을 시간 없이 코딩에 몰두하기 바빴으며 거기서 아침에 성실하게 블러셔를 바르고 온 건 나뿐이었다. 매주 자신이 개발한 게임, 웹사이트, 어플과 같은 결과물을 발표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난다. 허영게 뜬 얼굴로 허접한 결과물을 자랑했던 것이.

이건 분명 대표님의 작은 물음에 대한 나의 확대해석일지 모르겠지만 그 확대해석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줬다. 이후 정말 중요한 날 외에는 화장한 기억이 없다. 물론 여전히 중요한 날의 화장을 못 버린 나에게 자괴감이 들기는 한다.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 또한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자르고 나면 어색해서 너무 남자 같진 않은가? 이들은 거울을 보며 생각하기도 한다. 내가 가진 강요받은 여성성을 버리는 것, 그것이 어렵다. 하지만 어디선가 본 글이 떠오른다. ‘나는 사회에 나가서 여성이고 싶지 않다. 인간이고 싶다.’

나중에 회사에 가서도 혹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남’들은 로션 하나 바르고 일할 때 나는 블러셔까지 챙길 수는 없지 않은가. 안 그래도 멍청한 내가 남들보다 더해도 모자를 시간을 블러셔에 쓸 수는 없지 않은가. 탈코르셋은 분명 사회적 운동이지만 그 이전에 내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누구보다 나는 내가 잘 아니깐.

여전히 우연히 네이버 광고로 본 로라메르시에 블러셔 어느 색상이 예쁘고 그렇긴 하다. 망할 블러셔. 하지만 나는 화장품을 버릴 것이고 특별한 날에도 아무것도 없이 자신감을 가질 것이고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차츰차츰 나는 탈코르셋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남자들을 세워 놓고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주제 : 야망

바다 위의 연대

파도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 그것은 청소년기의 나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친구도 있고, 선생님과 관계도 나쁘지 않았지만 와글와글 모여서 노는 아이들 틈에는 잘 끼지 못했다. 이사를 자주 다녀서 그랬을까. 학교에 가기 전 몇 번의 수술과 잔병치레로 병원을 밥 먹듯 들락거린 탓일 수도 있겠다. 엄마 말로는 병원을 하도 많이 다녀서 나중에는 병원 간호사 선생님들이 생일파티도 해줬다고 한다. 어쨌든, 술 마실 때 알코올 냄새가 역하지 않더라.

친구가 아주 없지는 않아서 그랬는지, 원래 성격이 그런지 외로움을 타본 기억은 거의 없다. 친구가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점심시간같이 시간이 붓 때는 항상 학교 도서관을 찾았다. 학교를 마친 뒤에도 도서관을 자주 찾아서 사서 선생님도 나를 기억했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사서 선생님을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을 정도였다.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도 주로 도서관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 종업식날, 친구들을 만나러 학교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서 나는 성추행을 당했다.

엄마에게 울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엄마는 내가 그 일을 빨리 잊어버리길 바랐다. 그러나 9살의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다. 나는 나름대로 별어진 상처를 메우려 애를 썼다. 별거 아니라고도 생각해보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그건 바다에서 가라앉지 않게 해줄 뿐, 비를 막아줄 수는 없었다.

깊은 바다에서 작은 빨대로 숨을 쉬고 있는 느낌이었다. 상담 기관 같은 곳은 찾아볼 생각도 못 했다. 그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고, 내가 당한 일은 별거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들어주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다. 성폭력 예방 시청각 자료였는데,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담은 미니드라마였다. 다들 자거나 자습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평평 울어버렸다. 놀란 담임 선생님은 나를 복도로 데려가셨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친구를 통해 자초지종을 들으셨다. 선생님은 나를 꼭 안아주며 네 탓이 아니라고 말해주셨다.

그날 이후로는 마음이 한결 가뿐해졌다. 이따금 몰려오는 우울과 자괴감, 후회를 모두 막을 수는 없었지만 담임 선생님 같은 부표가 점점 늘어날수록 파도에 떠내려가는 횡수가 줄어들었다. 이제는 파도에 휩쓸리더라도 잡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

연대라는 이름의 부표가 많아질수록 나는 더 넓은 바다를 탐험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도 바다를 마음껏 누빌 수 있도록, 당신의 바다에 부표를 띄운다.

주제 : 연대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여자들

강정은

때를 맞은 여자들은, 달린다.

들판을 가로질러 바다를 향해 달리다 뒤돌아 다른 여자를 응시하며 자신이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 왔노라고 말하며 웃는 여자같이 달린다. 그를 불안하게 뒤쫓던 여자는 묻는다. 죽음어요? 달리던 여자는 말한다. 달리기요.

여자들은 달리면 죽으리라 의심받고 달리고 싶어서 죽었다 추측되고 달리는 방편으로 죽으려 들 테고 죽고 싶지 않아 달리를 시작하고 죽음을 감수하고 달리를 이어간다. 이때 달리기란 시선이 주파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 행위다.

이민경, 『피리 부는 여자들_긴 행렬을 부르는 그림』, p.110.

친구들과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나는 학교와 가까운 집을 놔두고 지하철역, 혹은 버스정류장으로 향한다. 통학하는 친구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이런 내게 친구들은 묻는다. 돌아가는 길이 외롭지는 않은지, 밤에 혼자 걷는 게 무섭지는 않은지. 글썄, 누군가를 배려해주고 돌아오는 길이 쓸쓸하거나 무섭게 느껴진 적은 거의 없다. 차분한 밤공기를 맞으며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고, 때로는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지나온 길을 다시 걷는 일이 즐겁기만 하다. 그렇게 친구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충만한 마음을 품고 잠들곤 한다.

아주 피곤한 날이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를 꼭 바래다주게 된 것은 작년부터였다. 나누고 싶은 말은 많은데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지니 우리는 걷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 이야기는 속 깊은 이야기일 때도, 실없는 농담일 때도 있었다. 헤어짐이 아쉬워서 역의 플랫폼까지 배웅하고 나면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연락을 주고받는다. 잘 들어가, 오늘 재밌었어, 다음에 또 만나. 집에 잘 들어가라는 연락과, 함께 보낸 하루가 행복했다는 말과, 다음을 기약하는 인사. 그리고 아침이면 또 이어지는 연락. 잘 잤니, 오늘 하루도 잘 보내.

친밀감이란 어떤 감정일까. 주위 친구들에게 친밀감에 관한 생각을 물어보니 사람마다 떠올리는 것이 다 달랐다. 서로에 관해 잘 알고 있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어색하지 않은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 마주보면 웃음이 나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불만을 터놓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긴밀하다고 느끼는 감정. 그 깊이와 무게는 사람이 맺는 관계의 수만큼 다양할 것이다.

인간관계를 숙제처럼 여겼던 나는 작년부터 뜻이 맞는 여자들과 친해지면서 관계 맺는 일의 중요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용기 내어 다가가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알게 됐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주변인들로부터 살아갈 힘을 얻는다.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나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달리는 여자들은 어딘가를 향하는가. 시선이 쏠히는 다른 여자에게로 움직일 때, 여자는 운동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운동하며 운동하는 가운데 사랑하고 운동을 사랑한다.

... 남성이라는 매개 없이도 서로를 응시하는 방법을 알아낸 여자들은 오래도록 시간을 보내고도 헤어지고 싶지 않아 자꾸만 뭉쳐 다니고 거리낌 없이 집을 드나들고 헤어지고 난 뒤에도 곧장 통화했다.

이민경, 『피리 부는 여자들_긴 행렬을 부르는 그림』, p.111-112.

함께한다는 것. 옆에 있다는 것. 같이 밥을 먹고, 생산적인 일을 함께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의 즐거움. 걱정과 고민거리를 나누고, 조건 없는 친절을 베풀며, 조금이라도 더 붙어 있고자 서로를 배웅하는 것. 돌아가는 길에도 집에는 잘 들어갔는지 연락을 주고받고, 밥은 챙겨 먹는지, 어떤 것을 먹었는지 궁금해하고, 자주 보는 사이여도 또 보고 싶어하는 것.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를 수놓고 있다.

홀로 세상에 맞서 싸우고자 했던 외딴 섬이 자신과 비슷한 섬들을 만나 하나의 큰 제도(諸島)를 이루었다. 내면에만 머물렀던 이야기들이 주파수가 맞는 목소리를 만나 비로소 세상을 향하고 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달리기를 주저했던 여자들이 서로를 향해 망설임 없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는 여자들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앞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멋진 여들과 함께 그려나갈 세상이 기대되지 않는가. 우리는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질 테다.

주제 : 연대

연대_서툰 손길로 눈송이를 쌓아 올릴 때

필명

현재의 계절은 겨울.

추위에 약한 나는 외출을 할 때면 조끼 패딩에 롱 패딩을 걸치고, 목도리를 두르고,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입어야 안심된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해 보일 수도 있다.

솔직히 나도 불편하다.

하지만 두꺼운 옷을 벗기엔 이 겨울이 너무 버겁다.

눈이 내린다.

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다.

눈이 오는 것이 질린다는 듯이 반응하는 사람들과 눈이 오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나는 그 어떠한 쪽도 끼고 싶지 않다.

그저 이 추위에서 한시라도 빠르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다.

카페에 도착했다.

나는 그제야 불편했던 장갑, 모자, 목도리, 롱 패딩과 조끼 패딩을 벗을 수
있었다. 한층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창문 너머에 사람들의 형상이 보인다.

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추운 날씨와 대비되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한둘씩 모여 바닥에 떨어진 눈송이들을 모으고 모은다.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걸까.

나는 고개를 돌려 해야 할 일에 집중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벗어놓은 옷들을 걸쳤다.

여전히 무겁고 불편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까는 보지 못했던 눈사람이 보인다.

아까 그 사람들,

추위도 느끼지 못하는 것만 같던 그들의 작품임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다.

끼고 있던 장갑을 벗어 바닥에 떨어진 눈송이를 만졌다.

차갑다.

하지만 버거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서툴게나마 작은 눈송이를 붙여보았다.

눈사람에 나의 흔적을 남겨보고 싶었다.

지금은 장갑 하나뿐이지만 언젠간 나도

그들처럼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본다.

나 역시 추위를 못 느끼는 것처럼

바닥에 떨어진 눈송이들을 굴려 멋진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져본다.

주제 : 연대

왜?

최윤서

‘여자가 조용하고 나서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말이 많니?’.

여성 인권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던 어린 나이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건가?’하고 지나갔을 뿐이죠.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교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겪으며 ‘왜’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책을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남성이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며 시위 피켓을 든 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회책을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에 왜 여성이 한 범주로 포함되어야 하며, 불가침한 권리인데도 여성들은 이를 보장받지 못해 권리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이전에는 별 문제없이 넘겼던 여러 말들이 이러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어린 나이부터 페미니스트에 많은 관심이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성 인권에 대한 본인만의 소신에 따라 목소리를 내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주변 친구들은 동성친구와 이성친구에 관계없이 페미니스트였던 그 친구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위 ‘극단적이다’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물론 모든 일과 상태에 있어서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연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를 계기로 저 또한 여성 인권에 대해 다시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한 여성이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집단의 목소리를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약돌은

연못을 그저 일렁이게 하는것에서 끝나는 반면, 바위는 연못에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저의 생각은 최근 넷플릭스 영화인 ‘걸스 오브 막시’를 보고 더 뚜렷해졌습니다. 영화 내에서는 한 학생의 목소리를 내자는 팜플렛을 시작으로 여성으로서, 동시에 한명의 인간 개체로서 동등하게 ‘Head up high(머리를 높이 들자)’하며 남성과의 동등한 인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누군가 동등한 인권을 외칠 때, ‘페미니스트다’, ‘누군가 나 대신 말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저 친구가 겪은 일을 내 가족이 겪었다면, 내가 겪었다면?’이라는 마음이 연대의 물결을 만들어 냈고, 그들의 아픔을 모두의 앞에서 당당히 드러내며 부정의를 폭로할 때, 걸스 오브 막시가 탄생했습니다. 이 영화는 남자는 무조건 잘못됐고, 여성은 항상 옳다라고 말하는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익명으로 서로를 돕고 손등에 별을 그리며 연대를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문제를 직면할 수 있었던 것이었던거죠. 만약, 걸스 오브 막시가 그 처음의 팜플렛에서 끝났다면,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모두가 웃어 넘겼다면, 성폭행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학교 여학생들은 문제 의식 없이 그저 본인들에게 오는 모든 얄팍을 그저 웃어 넘겨야 했을 것입니다. 여학생들간의 연대가 학교 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확장판이 사회라고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 사이에서도 연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반창고 안에서 그저 낫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모두가 그 상처를 낫게하기 위해 약을 지어오고 따듯한 말을 건네며 같이 이겨내고자 하는 과정은 여성들 사이의 연결을 더 단단하게 할 것이며, 혼자 있을 때 크게 소리내지 못했던 말들을 연대 위에 당당히 외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초반에는 남학생들의 은근한 성추행과 성희롱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왜?’라는 의문점을 갖기 시작함과 동시

에 목소리를 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이 ‘왜’라는 의문점이 여성 인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여성)끼리의 연대만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인권 보장에 대한 해답은 너무 뻔합니다. 하지만 저는 뻔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들어왔던 ‘이해’, ‘존중’이 해답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뻔하게도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인간 개체이고, 여성이라 남성보다 무엇이 뛰어나고 뒤처지고 하는 것이 아닌, 같은 인권이라는 불가침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개체이기에 본인의 권리가 중요하듯이 타인의 인권도 중요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인권 보장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남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길 요구하는 것. 너무 뻔하지만 뻔한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내 일은 아니라고 웃어넘겼던 일이 내 가족의 일이 되었을 때, 나의 일이 되었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하며 연대하고 뭉쳐 조약돌이 아닌 바위의 파장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성 인권의 기반에서 우리는 물론 나중의 많은 여성들이 본인의 열망과 열정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기를 바라며.

주제 : 연대

자유

bokdori

몸이 무겁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 그렇게 A 씨는 생각했다.

눈앞의 천장은 가까운 듯 먼 듯 울렁거리며 숨을 크게 들이쉬고 큼직한 몸을 옆으로 누이니 슬쩍 보인 유리거울에는 보고 싶지 않은 그 자신이 갇혀 있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를 것 같은 인형 같은 모습. 눈에는 초점이 없고 코는 이렇고 입은 저렇고. 아, 눈 모양은 둥그렇고 큰 것 같기도. 이런, 내가 또.

“A 야, 너도 바깥 생활 좀 해야지. 이렇게 좋은 날씨에 넌 뭐하고 있니?”

“...”

“움직이라고, 좀. 최대한 너 움직이게 하려고 말하는 거잖아.”

“알았어요.”

A 씨의 어머니는 침대에 덩그러니 누워만 있는 그가 보기 싫었는지 은근 기분 안 좋은 티를 내며 말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얼굴에 깊게 주름이 패여 있다. 요즘 나이가 들어 보여 피부 관리실에 다닌다며, 얼굴에 각질 제거용으로 아주 따가운 가시가 박힌 팩을 바르고 와서 빨갛게 부어오른 얼굴은 도깨비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코는 꽤 높고 입 꼬리도 썰쭉하니 올라가 있고. 아, 내가 또.

주섬주섬 옷가지를 대충 주워 대충 입었다. 기본 티셔츠와 바지, 흰 양말에 운동화. 눈앞의 유리거울에는 이제 좀 움직여서,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생기가 도는 A 씨가 서있었다. 엄마, 나갔다 올게요. 거울을 보며 콧잔등에 묻은 팩을 만지작거리는 어머니에게 그는 비장하게 말했다. 마치 어떤 전투에 출전하는 것 같이.

길거리에 한 발자국 내딛으면 수만 개의 눈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 뚜벅, 뚜벅. 응. 뚜벅, 뚜벅. 응? 헤어스타일이 이상한가? 티셔츠의 색이 나와 어울리지 않나? 바지가 체형에 맞지 않나? 내 얼굴이, 내 눈이, 내 코가, 내 입이, 또는 내 팔이, 내 가슴이, 내 허리가, 내 다리가. 그만하자, 내가 또.

A 씨는 가만 서서 주위를 둘러봤다. 그의 주위에는 그를 향한 시선 따위 없었다. 아니, 그에게 시선을 줄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옆 사람 B 씨가 한 발자국 내딛으면 단 두 개의 눈이 그를 보고. 옆의 옆 사람 C 씨가 두 발자국 내딛으면 단 두 개의 눈이 그를 보고. A 씨와 B 씨와 C 씨의 머리에 붙어 있는 단 두 개의 눈이 그들 자신을 보고. 아차, 내가 또. ‘아차, 내가 또.’, “아차, 내가 또.”

분명 탁 트여있는 공간인데 왜인지 숨이 막혀 헉헉대며 숨을 골랐다. 약간은 차갑게 느껴지는 바람에 A 씨의 볼은 빨갛게 물들었지만 머릿속은 깨끗하게 정리됐다. 인형을 청산하는 날. 단 두 개의 눈을 뽑아버리는 날. 이 따위의 생각을 하며 목표 지점으로 달음박질했다. 무거웠던 몸은 어느덧 가벼이 통통거리며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여.

‘미용실’

도착한 곳의 유리로 된 문에는 A 씨가 비춰졌다. 아직은 초점이 흐린 눈을 하고 있지만, 기분 좋은 땀을 흘리고 있는, 얼굴에는 이젠 좀 살아있는 분위기가 드러나는. 긴 머리의 점장이 “A 씨,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머리 정말 잘라요? 진짜 나 자를 거라니까요? 괜찮아요?”라고 말해도 아무렇지 않게 흘려듣는 A 씨. 눈앞의 유리거울 속에는 이미 전투를 끝낸 듯 지치면서도 승리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네.”

어깨 너머로 오던 머리를 썰걱썰걱하고 자를 때마다 각막이 한 겹씩 벗겨지는 것 같았다.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가벼워지는 느낌이야. A 씨는 그렇게 생각했다. 눈을 감은 채 점장의 손에 머리를 맡겼다. 눈앞에는 더 이상 유리거울이 없었다.

휴대폰 송금 앱으로 2 만 2 천원을 계좌에 보내고 “안녕히 계세요.”하고 나오는 A 씨.
다시 마주한 길거리에는 여전히 B 씨와 C 씨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한 발자국
내딛으면 그들을 따라오는 2 곱하기 n 개의 시선들. 아, A 씨는 눈알을 두 개 뽑고
왔으니 이제는 2 곱하기 $n-1$ 개의 시선들이라고 정정하자. 이제 그는 더 이상 A 씨가
아니다.

그는, 그들은

주제 : 연대

페미니스트 김온

이도이

“김온은 ‘자칭’ 페미니스트였다. 아무도 그녀에게 페미니스트라고 해주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스스로 페미니스트가 되었다. 김온은 이 시대의 여성이었다. 주변의 모두가 김온을 사랑했다. 생각이 똑 부러지는 사람이었다. 다니던 대학교도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 정도의 명문대학교였다.

페미니스트인 김온답게 주변에 페미니스트 친구가 꽤 있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을 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운동이나 다른 것에 더 매달리는 사람들이었다. 모두 인상은 좋았다. 그들은 때때로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다고 해서 페미니스트인 친구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닌 친구가 훨씬 많았다. 애인을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치우는 친구도 있었고, 군대에 간 친구도 있었으며 어쩌다 보니 이르게 결혼을 한 친구도 있었다. 김온은 그들 모두를 사랑했다.

김온은 자신의 삶을 꾸리는 데 탁월한 선수였다. 코어 운동을 꾸준히 하고, 글을 쓰고, 취미인 도예를 좋아했다. 가끔 작은 머그잔이나 접시, 수저 받침대 같은 것을 만들어 주변인들에게 선물했다. 친구부터 시작해서, 과외 학생, 후배, 선배까지 가리지 않았다. 우리 집에도 물고기 모양 접시가 있다.

김온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김온에게 고백하는 이도 더러 있었지만, 김온은 연애가 자신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톡톡히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추후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을 그녀는 일종의 양보와 같은 행위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말하기를, “여성들이 무조건 연애와 화장을 지양해야 하는 건 아니야. 나중에 연애와 화장 같은 것들로 여성이 피해를 보지 않게 되면, 그때는 원하는 사람들만 즐기는 문화로 남게 되겠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의 세대들을 위해 난 지금을 양보하는 거야. 솔직히 연애하기가 무섭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며 김온의 눈이 반짝 빛나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나는 알고 있다. 그녀는 실수하지 않았다는 걸. 그렇지만 김온은 정말 멋진

여성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여자는 말을 마치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이 일기를 쓴 남성은, 일기 속 여성에게 고백했다가 받아주지 않자 여성의 목을 졸랐습니다. 다행히 여성은 평소 격투기를 배우고 있었고, 빠른 순발력으로 남성의 고환을 차고 머리를 가위로 때려 무사히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남성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라디오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익숙한 일이 아니었다. 라디오라서 이름 부분이 ‘그녀’나 ‘여자’ 정도로 번역되어 나오는 것을 들었지만 김온은 그 명사들이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똑똑히 들렸다. 벌써 8개월 전의 일이었지만 그 날의 기억은 생생했다. 죽기 전까지 그 기억을 온전히 가져가게 될 것 같아 마음이 씩씩했다.

누구보다도 믿음직스러웠던 볼링 동아리 회장 오빠. 함께 볼링을 치러 다녔던 추억이 정말 많았고, 남자라면 피하게 되는 페미니즘 이야기도 그에게는 편히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목이 졸리던 순간 다시는 남자와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게 될 것을 알았다. 지나가다 눈이 마주치는 것도 싫었다.

김온은 라디오를 끄고 창문을 열었다.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라 그런지 하늘이 눈부시게 하늘색이었다. 그때, 전화가 울려 블루투스로 전화 연결을 받았다. “온아, 어디야?” “언니! 저 거의 다 왔어요.” 온은 전화를 끊었다. 만날 생각만 해도 웃음이

실실 나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다. 그 남자의 머리에 가위를 박아 넣고 집을 뛰쳐나와 길거리에 주저앉았던 순간, 자신에게 주저없이 괜찮냐고 물어보았던 사람. 온을 병원에 데려다주고도 걱정이 되었는지 번호까지 주며 연락하라던 사람.

온은 차를 주차장에 대고 식당에 들어갔다. 언니가 밝게 웃으며 자신을 반기는 모습을 보았다. 온은 왜인지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다.

주제 : 연대

운문 부문



타오르는 눈

김눈송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한때 사랑했던 이 말이 어느 순간 마음에 박혀서
어째서 나의 힘은 부드러워야만 하는지
오래도록 고민하던 시간이 있었지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불은 너무 거칠어서
손에 쥔 눈꽃 송이가 다 녹아버리면 어쩌지, 하고

이제 나는 그냥 눈꽃이 되기로 했어
녹아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
우리는 녹아서 무엇이든 될 수 있으니

간밤의 눈은 소리 없이 온 세상을 덮고
가장 깊은 바다는 고요히 회오리치듯

마음에 불을 품은 눈꽃 송이가
하나 둘 지상에 내려 세상을 덮으면
눈을 뜬 우리의 아침은 새하얀 백지가 되어
바라는 세상을 펼칠 일만 남았다

파아란 하늘을 자유로이 훑날리던 눈꽃 송이가
타오르는 불을 끌어안고 녹아 흐르면
우리는 세상을 움직일 푸른 물결이 되리라

느리게 너울지는 파도가 가장 많은 것을 휩쓸듯
세상을 바꿀 우리의 힘은
부드러울지언정 연약하지 않으니

지지 않는 숨

노무사합격하게해주세요

개울에서 조약돌을 닦았지
조약돌에 남겨진 물결을 따라
물결에 비친 햇빛을 보며

조약돌을 꼭 쥐고 바다로 달리니
햇빛보다 따뜻한 빛이 내 손에 엉겨붙었지 뭐야
더운 손바닥 짝 펴고 추위로 나아가야지

찬 바다가 외로워 보여
바다야 चु지마라 조약돌을 던졌지
가르마를 내며 지평선 너머로 날아가는 나의 손

담상담상 자라는 조약돌은 무릎을 맞추고 파랑을 노래해
바다의 놀소리는 고명팔도 곧추세웠어
가뭇없는 바다도 너의 길이란다
머뭇거리는 눈동자도 아름다운 것
흔들려도 엎드리지 않는 것들은

속일 수 없는 것
믿을 수 있는 숨
언젠간 적도까지 흘러가 가장 외로운 손에 닿겠지
그때까지 널 데우며 밤새 꿈을 불러내

달빛 진 밤엔 긴 숨으로 수영을 하자
뜨거운 파랑을 운나는 유니폼으로 가르며
결승점을 넘어 지지 않는 하늘로 가자

여명

이유민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다가
눈꺼풀을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분노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그 날에도 태양은 여상히 떠오르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 힘이 난다
오늘을 꿈꿨던 어제의 자매들과
내일을 꿈꾸는 오늘의 자매들을 위해

멈추지 마라
주저앉지 말아라
한 줌 빛이 돼도 좋으니
이제 어둠에 눈 감지 말자

순간
여명이 온몸을 감싸면
나는 그대들의 목소리를 들으리

꽃이 꺾여 내가 되었다

익명의 송이

꽃이 꺾여 시든다.
시들어 땀감이 된다.
시든 꽃에서 불꽃이 인다.
불꽃은 도화선이 되어 불을 일으킨다.

내 안에 살아 숨 쉬는 열망의 불길아,
활활 타올라 화염이 되어라.
훨훨 날아간 나비, 잿가루뿐 남지 않을

죽지 않고 살자. 살아남자.
내 너에게 보여줄테니, 우리 보자.
끝끝내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나비

곰돌이

광활한 벚꽃에 얹혀진 한숨
아무런 향기 없는 꽃을 향한
그대의 허무를 감히 가늠치 못합니다

모난 메꽃에 부딪힌 분노
아무런 열매 없는 꽃을 향한
그대의 설움을 감히 가늠치 못합니다

부디 묻은 꽃가루를 털어내어 날아가길

당신의 날개짓이 한낱 작은 바람을 지나
거대한 태풍이 되어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대는 부디 접시꽃 위 나비가 되세요

나의 숙명에게 감사합니다

김혜미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꿈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당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용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내 편을 얻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웃음 나는 동료들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사랑합니다.

낭만은 죽었다

익명

나의 낭만은 죽었습니다.

청년들이 그들의 손에 으스러질 때,

그리고도 그들이 고개 뺏뺏이 들고 살아가는 것을 보며

나의 몸은 움츠러들었습니다.

3년 만난 애인에게 목이 졸려 죽은 그 여자의 일은

그들에게 낭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나에게 다가오는 동안

나는 고개를 무릎 사이로 말아 넣고 미약한 숨을 쉽니다.

무릎이 온통 젖어오는 동안

나는 나의 낭만을 죽이고, 마음을 도려내고,

죽은 그녀의 곁으로 가서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당신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당신의 손을 마주잡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낭만은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낭만은 죽었습니다.

설산

성태음

칠혹의 밤이 먼저 삼키지 못하도록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꿈들이 빛난다
거무스름한 작태가 눈부신 자태가 되기를
누구든지 우리러보기도 소복이 쌓이기도 하는
순수하게 높은 존재로 우뚝 서기를

따가운 오뉴월을 헤쳐온 가지들과
사정없이 낙하하는 순백의 눈송이
기꺼이 품을 내어 주리라
온몸을 던져다오 내게
나는 우직한 산이 되었노라

손

파란장미

뻗었지만 돌아오는 건
허상과 허무
바람에 실려
어두운 이상을 향해 가는 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가까워지려 해도 남겨지는 건
계속된 추락
뻗은 손이 애써 괜찮다는 듯
눈물을 가려주고

걸어온 걸음을 위로해줄 때
바람에 실려
밀려난 걸음을 붙잡아 준
뻗었을 때 돌아오는 건
또 다른 손과 하나의 언어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은 죽고 싶은 너에게

익명의 송이

눈부신 하늘 아래
그 눈부심을 가질 수 없어 서러이 우는 이가 있다.

눈부심은 그를 눈멀게하고 이내 어둠만이 찾아온다.
눈부심을 이기지 못해 녹아버린 눈은 물이 되었고 어둠의 틈새로
눈물이 새어나왔다.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살고싶다.
살고싶다. 살고싶다.
간절한 생명의 흐느낌이 어둠을 채운다.

그림자 아래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삶의 의지.
어두울수록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다.

선연히 빛나는 어둠.
사실은 내가 죽고싶은 게 아니라 나를 죽고 싶게 한 그를 죽이고
싶은 거였다고.

그러니 나의 자매를 앓아가지 말아라.

야망

유빛

우리는 바랐던가 우리는 원하는가
야속한 세상아래 목청껏 외칠텐가
내치자 욕망의 족쇄 밝히자 열망의 힘

야망_선한 영향력

필명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을 던질 때
나의 겉치레가 아닌
나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 주는 당신이
많아지는 것

그런 당신이 많아질 수 있는
내가 되는 것

야망과 요망

적목련

나도 야망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사람처럼 되고 싶었다.
선망의 대상이자 로망의 대상이 되고 싶었다.
전도유망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난 나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다,
이런 나를 발견하고 실망했다,
영망인 내 세상에 절망했고 원망했다.
허망했다, 내 야망이. 민망했다. 내 욕망이.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야망을 품어본다.
내 야망에 가망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난 이제 요망한 사람이 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이다.

여성

심온

우리는 여성(女性)*
우연히 그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여성(戾聲)**
혹자는 우리가 옳지 않다 말합니다
틀린 적이 없는데 배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는 여성(厲聲)***
계속해서 함께 소리칩니다
여성이 세상을 물들일 것입니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서로 따라 할 수 없는 삶을 꾸리면서도
우리는 같은 지향점을 품은 채로 나아갑니다

* 여성(女性): 성(性)의 측면에서 여자를 이르는 말.

** 여성(戾聲): 틀린 음.

*** 여성(厲聲): 성이 나서 큰 소리를 지름. 또는 그 소리.

연대

조약돌

하나의 눈꽃이 모여
숙명의 불꽃이 되다

이제는
하나의 불꽃이 모여
세상의 불빛이 되기를

연대합니다

김눈송

어젯밤,

작게 피어나기 시작한 당신의 계몽의 불씨에 연대합니다.

긴 새벽,

불씨를 후 불어버릴지, 두 손을 등글게 모아 밤새 그것을 지킬지, 수 없이 고민한 당신의 고뇌의 시간에 연대합니다.

오늘 아침,

당찬 결단력으로 용기의 불씨를 쥐어 곳곳이 내딛는 당신의 전진에 연대합니다.

지금도 어김없이 그 빛을 보전하려 불꾸러미를 퍼뜨리는
우리를 위해 연대합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그 열기를 이어나가기로 무언의 다짐을 하는
우리를 위해 연대합니다.

우리가 손을 잡으면, 눈꽃이 손에 배이고

한

고심 끝에 눈꽃 하나를 그린다
꽃은 너무 여리고
눈은 너무 슬프니까

조용히 이 말을 듣던 바늘잡이가
그럼 눈꽃은 여리고 슬픈 건가요? 한다
아니요 아니죠 여리지도 슬프지도 않다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세번이나 젓는다

관리가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런다
애지중지 하려구요
나는 괜히 너스레를 떤다

팔랑이 없는 문을 다정히 붙잡고 나선다
뒤돌아 한마디 한다
이 눈꽃은 이제 저랑 있어요
여리고 슬픈 거 아니에요

육신거리는 손바닥을 자세히 바라본다
여리지도 슬프지도 않은 내 눈꽃
여리지도 슬프지도 않은 내 눈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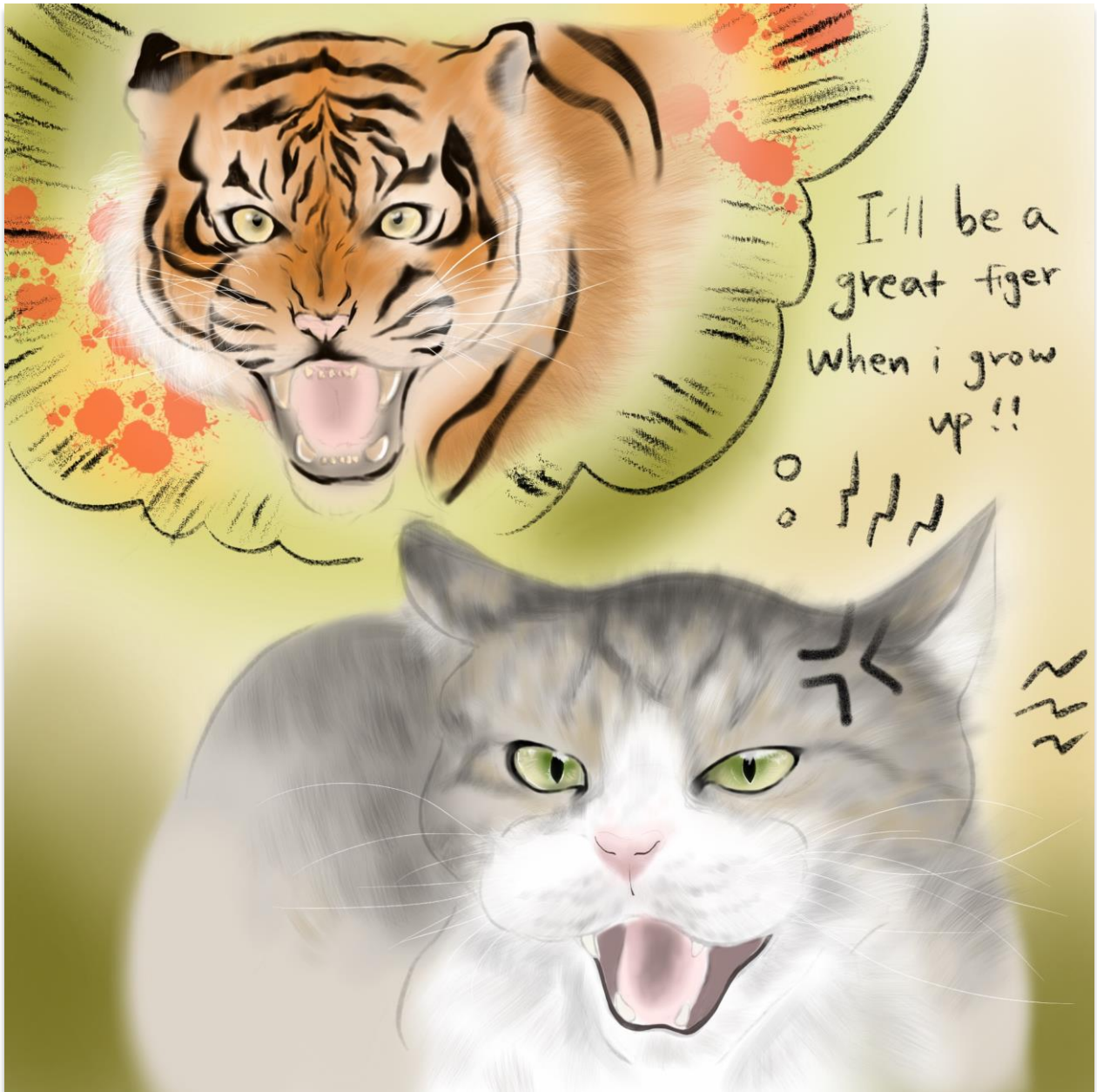
그림 부문



장원

고양이의 꿈

김단



작은 아기 고양이가 자신보다 덩치가 큰 다른 고양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언젠간 꼭 크고 용맹한 호랑이로 자라겠다는 야망을 다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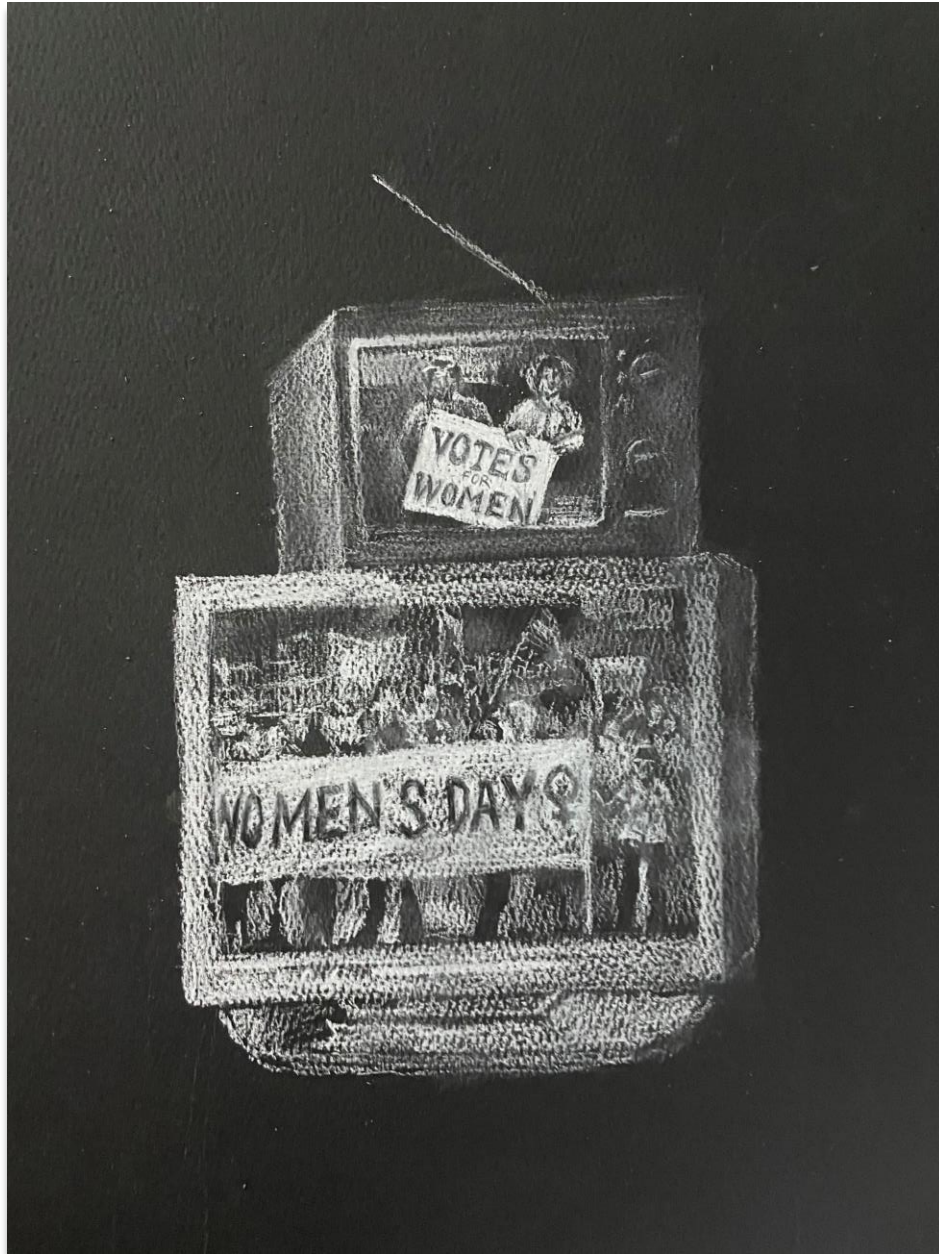


"앞을 보고 달리기 지칠 때엔 뒤를 돌아보라. 그리고 당신과 함께 달리는 수많은 여자들과, 그들과 당신이 찍은 발자국을 보아라. 그것이 당신이 세상을 바꾸었다는 증거다." _ 연대는 옆에서 함께 달리고 걷는 것. 여성으로서 달려온 모든 당신의 발자취를 응원합니다.

차하

(무제)

정윤경



우리의 연대가 화면 속 한 장면이 아닌 현재로 지속되기를.

나의 강력한 희망사항

하고픈거많은야망송



불타오르고 있는 송이를 중심으로 야망을 그려보았습니다. 유명 IT대기업의 개발자가 되어 여유로운 커피 한잔을 하며 업무를 하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 프로젝트 발표를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나, 상받는 나,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 관리를 잊지 않고, 요리도 잘하는 나, 연애하는 나, 건물주가 된 나, 자차를 가진 나. 이 야망들 모두 이루기를..!



여성의 달을 맞이하여 검사와 우주비행사의 직업을 가진 여성을 그려 숙명인들이 자신의 뜻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작품입니다.



연대(連帶)

1.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2.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

나는 당신이 여성이라 겪는 문제 앞에 당신과 나를 분리할 수 없기에 연대한다. 당신과 연대하는 것이 결국 나와 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있어 여성 연대가 가지는 의미를 상하 구분이 없어 끌어올리는 손이 동시에 끌어올려지는 손이기도 한 그림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숙대 총장이 되는 게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수십 년간 모은 돈을 숙명여대에 투자하여 많은 송이들이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제 야망을 알리지 마세요

익명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겉으로만 보고 저를 판단하지 마세요! 제 키는 작지만 야망은 아주 크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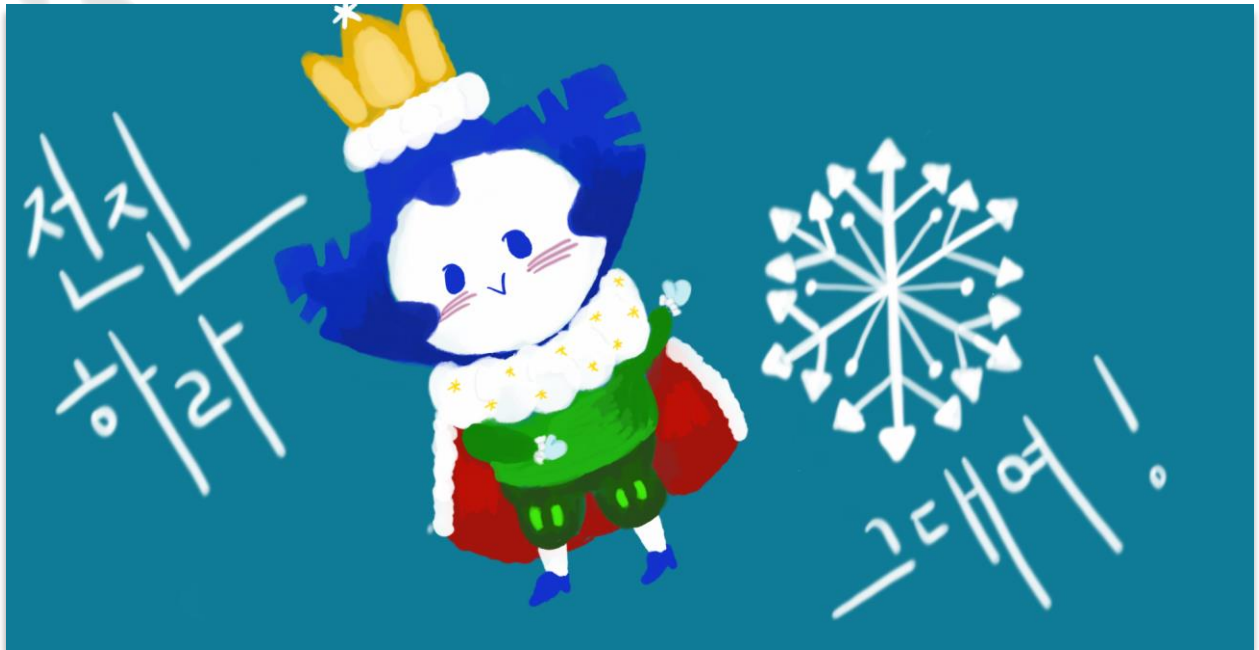
눈송이들이 모아 만들어진 기적

필명



숙명여자대학교의 대표 캐릭터인 눈송이들을 모아 만든 눈사람입니다.

작은 눈송이는 사람들이 지나치지만 작은 눈송이들로 만들어진 눈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처럼 우리 송이들도 연대해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끌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그려보았습니다!



성별에 따른 어떠한 장벽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룬 눈송이를 그렸습니다. 왕의 옷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큰 일을 이루고 세상에 흔적을 거대한 눈송이로 남겼다는 의미입니다. 전진숙명이라는 슬로건을 응용하여 모든 숙명인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메시지를 썼습니다.



숙명인의 야망을 눈송이 안의 불꽃으로 표현해보았습니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심장, 그리고 열정을 가진 모든 숙명인을 응원합니다!